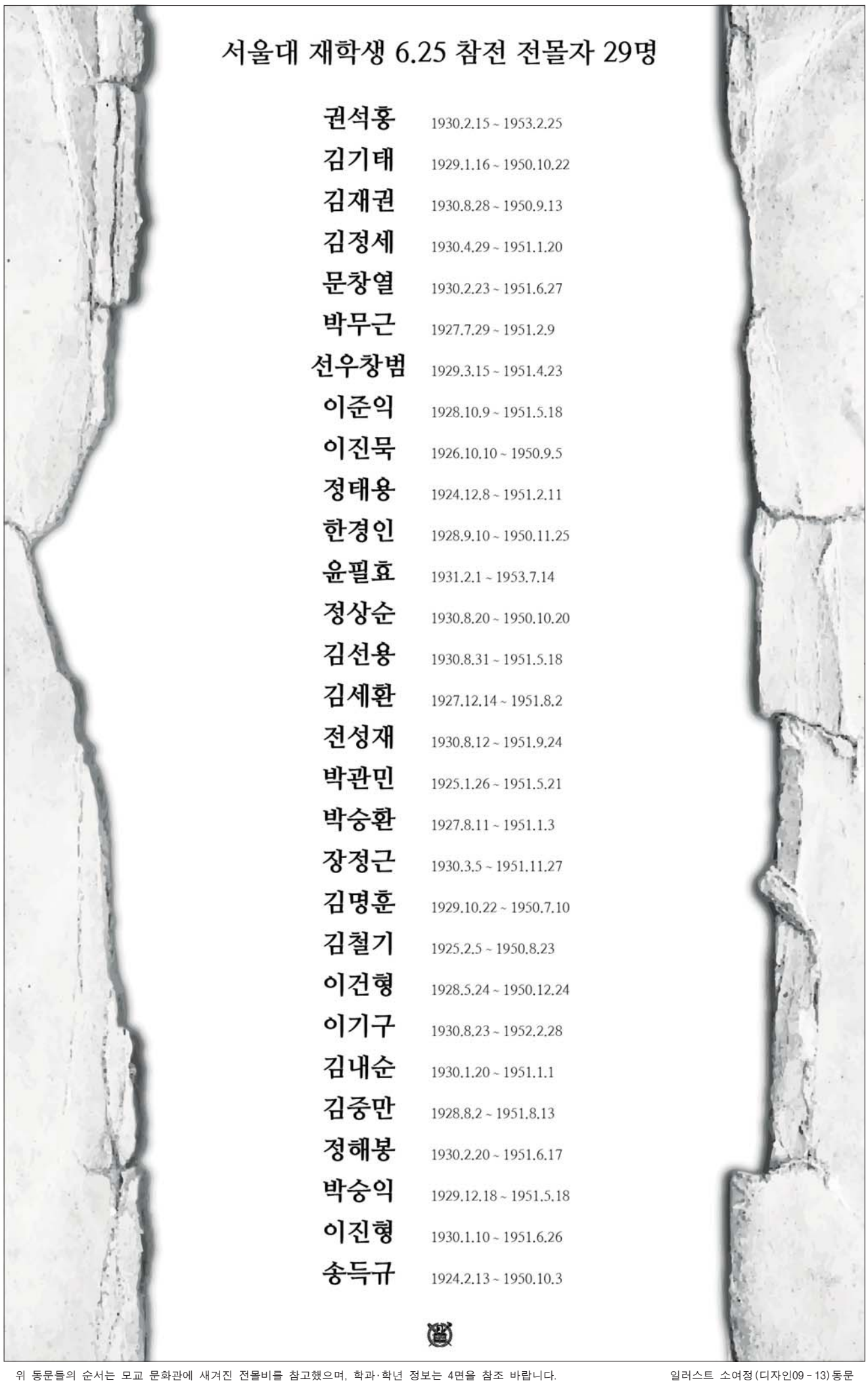
참 여
협 력
영 광

서울大同窓會報

2015년 6월 15일
1976년 4월24일 창간|월간|제447호

www.snua.or.k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開學1895년·統合開校1946년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위 동문들의 순서는 모교 문화관에 새겨진 전몰비를 참고했으며, 학과·학년 정보는 4면을 참조 바랍니다.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 - 13)동문

커버스토리 ‘서울대와 6·25’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흘렀다. 서울대에서도 수많은 재학생들이 참전해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 그러나 서울대가 갖고 있는 순국자 명단은 29명밖에 없다. 그 이름조차 아는 이가 적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을 확인해 줄 유족이나 지인들은 줄고 있다.

명단 발굴이 더딜 뿐 아니라 이들을 기념하는 시설도 초라하다. 서울대는 1996년 개교 50주년에 문화관 대강당 로비 벽에 전몰 동문 이름을 새겼다. 지난해에는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서울대 홍보관(SNU Hall) 2층 구석에 전몰 동문 이름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런 기념물조차 규모가 작고, 방문이 뜸한 곳에 있다는 것이다. 홍보관에 마련된 6·25 순국자 명단에는 김세환(문리대) 동문의 이름마저 빠져 28명의 동문 이름만 기록돼 있다. 정상순(농대) 동문은 ‘정산순’으로 표기했다.

순국 동문 찾기·기념공간 과제

서울대는 2010년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순국 동문 기념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6·25 전쟁뿐 아니라 독립운동, 세계평화유지군 활동 중 순국한 서울대 동문을 본격적으로 추모하겠다”며 관련 기록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몇 명의 순국자 동문만 추가 발굴했을 뿐 큰 진전이 없었다. 지난해에도 ‘한국전쟁의 길’ 조성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내년 계획도 없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부 관계자는 “문화관 전몰동문추모비 및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는 예정돼 있지만 전몰 동문 관련 새로운 시설물 건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며 “전몰 동문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야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전몰 동문 확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학사과 관계자는 “전몰 동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적부, 제적등본, 유족 확인의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제적등본, 유족 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문제는 동문 확인의 기본이 되는 학적부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대가 부산으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되기도 했고 당시 이름 등을 오기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족 등이 사진, 문서 등의 증명이 될 만한 자료를 갖고 모교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6년 개교 50주년에 6·25 전몰자 기념사업을 주관했던 모교 사회학과 홍두승 명예교수는 “학적부에는 전쟁에 참전한 사실 기록이 없고, 군의 전사자 명단에는 학교 기록이 없으며, 혼란스러운 시대라 기록도 정확지 않아 전몰 동문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몰 동문을 찾는다는 언론보도가 큰 도움이 돼 여러 동문을 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4면에 계속〉

Inside 4~5 기획 ‘서울대와 6·25’ | 13 화제의 동문(田龍宙 iHQ 대표·프라카시 주한네팔인협회 사무국장) | 16 시대별 모교 축제

별지부록 : 모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느티나무광장

'클랙슨稅'를 걷자

金 侊 日
(불어교육77-81)
조선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네거리에 산 적이 있다. 내 방은 5층에 있었다. 건물이 코너에 있었고, 내 방이 길가 쪽이어서 네거리가 잘 내려다 보였다. 몇 발자국 안 간 가까이에 서울지방경찰청도 있었다. 번화한 거리는 아니어서 밤 11시가 넘으면 대체로 괴괴했다. 문제는 자동차 경음기였다. 클랙슨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꽝 꽝 꽝' 혹은 '빽 빽 빽'하고 마치 폭탄 터지듯 울려서 벌떡 일어나 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말이 실감난다. 목 뒷줄기가 날카로운 갈고리에 채여 쭈뼛하고 공중으로 치솟는 느낌마저 든다. 비슷한 소음 때문에 유럽에서는 살인 사건도 일어난다. 기껏 1백~2백가구가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굉음을 울리며 마을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런 폭주족은 대개 머플러를 개조해서 그 오토바이 폭음이 군사 폭탄 터지는 소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폭주족은 낮 시간대보다는 사위가 조용하게 잠든 새벽 1시쯤을 선호한다. 비슷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폭주족 때문에 고통의 밤을 보내던 어떤 할아버지가 저격용 고성능 소총을 창가에 설치해놓고 기다렸다가 폭주족이 나타나자 그대로 쏴서 죽였다. 내가 만약 그때 재판관이었다면 할아버지에게 무조건 무죄를 선고했을 것이다.

자동차 클랙슨은 최대 1백10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 1백데시벨이면 가까이서 천둥치는 소리이고, 1백10데시벨이면 록 밴드 소리다. 1백20데시벨이 제트기 엔진 소리다. 경찰은 보통 도심에서 80데시벨 이상을 내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 경음기는 자전거, 자동차, 트럭, 열차, 그리고 선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자동차에는 경음기가 2개씩 달려 있다.

내가 만약 교통부 장관이라면,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평균적 교양을 지닌 양심적인 시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교양 테스트 양식을 만들어서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경음기 부착 권한을 주도록 정부 입법을 시도하겠다. 이 경우에도 핸들에 부착된 경음기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5백원씩 부과하는 환경소음부담금 제도를 만들겠다. 경음기 버튼을 6개월 동안 몇 번이나 눌렀는지 그 횟수가 자동차 계기에 기록되도록 해서, 자동차 세금을 낼 때 '클랙슨세(稅)'를 합산해서 물리겠다. 어떤 택시 운전사가 한 달에 1백번씩, 6개월 동안 클랙슨을 6백번을 눌렀다고 하면 그 운전사는 별도로 클랙슨세를 30만원을 내야 한다.

우리는 타인에게 "내가 간다, 비켜라, 위험해, 내가 있다", 그런 뜻으로 위협하듯 클랙슨을 누른다. 연고지 축구팀이 이겨서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일 때, 교차로에서 상대 차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할 때 클랙슨을 누르는 나라도 있다. 우리도 그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클랙슨세를 물렸으면 한다.

관 악 시 단

에이 시브럴

金 思 寅(국문74-80)
시인·동덕여대 교수

몸은 하나고 맘은 바쁘고
마음 바쁜데 일은 안되고
일은 안되는데 전화는 와쌓고
땀은 흐르고 배는 고프고
배는 굴풋한데 입 다실 건 마땅찮고
그런데 그런데 레레비에서
〈내 남자의 여자〉는 재방송하고
그러다보니 깜북 졸았나
한번 감았다 떴는데 날이 저물고
아무것도 못한 채 날은 저물고

바로 이때 나직하게 해보십지
'에이 시브럴—'
양말 벗어 팽개치듯 '에이 시브럴—'
자갈밭 막 굴러온 개털 인생처럼
다소 고독하게 가래침 돋워
입도 개운합지 '에이 시브럴—'
갓댐에 염병에 ㅈ에 ㅆ, 쓸 만한 말들이 줄을 섰지만
그래도 그중 인간미가 있기로는
나직하게 필부는 '에이 시브럴—'
얼토당토않은 '에이 시브럴—'

마감 날은 닥쳤고 이런 것도 글이 되나
크게는 못하고 입안으로 읊조리는
'에이 시브럴—'

* 김사인 동문이 올해 초 펴낸 시집 '어린 당나귀 곁에서' 중. 김 동문은 이 시집으로 최근 제15회 지훈상(문학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동문칼럼

서울대와 6·25기념비

崔 鍾 庫
(법학66-70)
모교 명예교수
대학원동창회장

6·25 전쟁이 지난 지 65년이 지난 오늘도 서울대는 기념비 문제로 양심 테스트를 받고있다. 이른바 민주열사들을 위한 추모비는 캠퍼스 여기저기 서있는데, 민족 최대의 아픔이요 상처인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비는 없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비양심적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의 유수 대학들에 전쟁에서 희생된 학우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없는 곳은 없다.

서울대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전쟁을 치른 제1공화국은 겨를도 없이 4·19에 의해 전복됐고, 그 후 군사통치 아래서 대학가는 민주화 투쟁으로 질주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캠퍼스는 민주화의 열기로 차서 그것 자체가 현대사와 대학사를 이뤄왔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관심했던 것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었다. 숨가쁜 복구와 눈부신 발전 속에서 지나간 아픈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작용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전쟁 속에서 서울대가 입은 인명적·재산적·정신적 피해는 얼마나 컸던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지성공동체에서 무엇을 소중하다고 하겠는가. 우리는 희생된 선배들의 고귀한 피 위에 서 있다. 그간 어쨌든 국립대학교로 그냥 지내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라도 반성, 시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5년 개교 50주년에 자그만 기념패를 제작해 문화관 대강당 입구 위에 박아놓았는데, 솔직히 그것은 너무 초라하고 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보는 이들의 중평이다. 그 후 몇 분들의 지적과 주장으로 정식의 전쟁추모비를 세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역대 총장들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조용하게 이런 뜻있는 일을 챙겨야 할 대학본부가 법인화라는 구조개혁에 몰려서 차분히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역사관을 지으면 그 속에 넉넉한 공간을 전쟁 추모의 공간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왔는데, 최근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문화관을 재건축해 역사연구기록관으로 혼합할 전망이다. 아직 설계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내용적으로 서울대의 역사가 충실히 정리되고 풍부하게 전시돼 서울대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감명 깊게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희생자를 위한 추모공간은 충분히 제대로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내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필자는 수차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도 교사(校史)편찬위원회가 있지만 역사관의 전시 준비와는 연결돼 있지 않다. 그리고 이 편찬위원회도 120년사의 초기사만 끝내면 언제 해체될지 모른다.

서울대는 그동안 여러 해 모색해온 이런 중요한 정리작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하나로 지금까지 미루어온 전쟁기념비의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필자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역사연구기록관에 제대로 전쟁기념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면, 현재의 4·19기념공원을 민족사추모공원으로 확대 설계해봄직하다고 생각한다.

총동창회가 역사관을 위한 재정까지 약속했다면 그 일환으로 전쟁추모비 건립부터 착수해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 믿는다. 솔직히 지금은 서울대가 돈이 없어 못한다는 변명은 안 통하고 진지한 성찰 속에서 뜻있는 일을 차분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확고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대가 민족의 대학이라고 자부해왔고 그것을 기초로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위상을 유지해나가려면 캠퍼스에 들어와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느끼는 서울대 캠퍼스의 허탈감은 이제 이런 면으로 승화돼야 할 것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 행 인 徐 廷 和
편 집 인 金 英 豪
인 쇄 인 朴 承 熙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02)702-2233 팩스(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홍보본부장 安興燮 편집장 金南柱 편집부 기자 邊廷洙, 朴秀珒
학생기자 김성구(서양사13入), 김시현(국문10入), 김예원(언론정보13入), 박성연(국문11入), 박종석(사회복지석사과정), 박준모(언론정보09入), 방준휘(전기정보12入), 양진수(농경제사회09入), 이시원(독문14入), 이지은(정치외교15入), 최세진(의학전문대학원)

“선배님들께 생생한 모교 소식 전해드려요”

본보 학생기자 11명 선발

학내 뉴스·동문 인터뷰 등 색다른 시각으로 보여줄 터

발대식에 참석한 본회 박승희 사무총장과 학생기자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본회(회장 서정화)는 동문과 재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모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총동창회보 학생기자단 11명을 선발했다.

본회는 지난 5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파인룸에서 본보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첫 학생기자단 출범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회 박승희 사무총장이 학생기자들에게 위촉장과 명함을 수여했으며, 학생기자단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본보 학생기자단은 학내 공모를 통해 최종 11명의 재학생이 선발됐다. 균형적인 구성을 위해 각 단과대학별로 모집했으며, 교내외 언론매체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선발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교내 행사와 명사 특강 등 생생한 모교 소식을 취재하고 동문 선배와의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며 모교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본보 446호 11면과 18면에 기사를 게재하며 첫 선을 보인 학생기자단은 본보의 다양한 지면들을 더욱더 동문 선배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사들로 꾸며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6월호에는 김성구(서양사13입)·방준휘(전기정보12입)·김예원(언론정보13입)·이지은(정치외교15입) 학생기자가 봄 축제 등 다양한 학내 소식을 취재했다.

이지은 학생기자는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기자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도 크다”며 “언젠가는 동창회보에 실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되고 싶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시현(국문10입) 학생기자는 “앞서서 세상을 움직이고 뒤편에서 사회를 든든히 받쳐주는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성인으로서의 서울대인의 정신을 간직하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을 끈끈히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학생기자단은 매월 정례모임을 통해 활동 내용과 계획을 공유하게 된다. 본회는 학생기자의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현직 언론인으로 활동하는 본보 논설위원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기자단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성구(서양사13입) △김시현(국문10입) △김예원(언론정보13입) △박성연(국문11입) △박종석(사회대 석사과정) △박준모(언론정보09입) △방준휘(전기정보12입) △이시원(독문14입) △이지은(정치외교 15입) △양진수(농경제09입) △최세진(의학전문대학원 본과과정)

〈박수진 기자〉

제16회 사은골프대회 동문·교수 화합의 장

동문들, 교수 경품 양보

金善振교수 동창회장상

朴榮敏동문 모교총장상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 인천그랜드CC. 총동창회에서 모교 교수들을 초청해 16회 사은골프대회를 하는 날이다. 참가를 약속한 교수 및 임원은 총 51명. 늘 그렇듯 ‘갑자기’ 약속이 생겨 못 오는 분들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날 행사에는 100% 출석. 화창한 날씨에 순조로운 진행까지 보장됐다. 더욱이 사은골프대회에 걸맞게 모교 교수들이 30명 이상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OUT조의 출발은 김동욱·이석원 행정대학원 교수와 박영준 본회 감사가 시작했다. IN조에서는 우영화·이경하·백완희·이혜숙 동문 혼성조가 스타트를 끊었다.

이날 동문들은 18홀을 카트 없이 5시간여를 걷는 ‘진짜 골프’를 즐겼다. 인천그랜드CC가 평지이긴 하지만 초여름 더위에서의 라운딩이라 쉽지만은 않았을 터. 그럼에도 18홀 후 9홀을 더 돌겠다는 동문들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뒤땅을 치거나, 물가로 공을 보낸 동문에게는 넉넉하게 멀리건을 주고, 시원한 드라이브 샷을 구사한 동문에게는 아낌없이 ‘나이스 샷’을 외치는 등 서울대인의 여유를 보여준 동문들은 오후 4시경 경기를 마치고 만찬장으로 들어왔다.

5시간 동안 5~6km를 걸으며 한층 가까워진 동문들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행사장에서 만난 수의과대학의 한 교수는 “이번 행사가 모교 교수들에게 잘 알려졌다면 더 많은 교수들이 참석했을 것 같다”며 “내년 대회에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만찬 행사는 본회 박승희 사무총장이 서정화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인사말에서 “만남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라며 “오늘과 같은 만남을 통해 서울대 교직원과 동창회 임원이 서로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를 희망하고 이 자리에서 나누는 즐거운 대화 속에서 후배들과, 모교와, 대한민국을 위한 동력이 싹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수상자 호명은 박영준 감사가 맡았다. 사은골프대회이긴 하지만 엄격한 룰에 따라 수상자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 박 감사는 “친선 골프대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신페리오 방식을 적용했다”며 “넉넉한 마음으로 수상자들을 축하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동창회장상을 받은 김선진 교수의 드라이브 샷(왼쪽), 모교총장상을 받은 박영민 동문의 필드 패션

이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동창회장상은 모교 사범대학 김선진 교수가 차지했으며, 모교총장상은 박영민 고려대 명예교수가 받았다. 두 동문 모두 체육교육과 출신이다. 박 동문은 동문골프대회 경기위원장으로 매년 수고하고 있다. 〈수상자 도표 참조〉

보통 이런 행사에서 진짜 알맹이는 경품 추첨에서 나오는 법. 역시 이날 경품으로 김종섭 스페코·삼익악기그룹 회장 회장이 협찬한 디지털 피아노와 기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밖에 정팔도 코리아랜드 캄파니 회장이 협찬한 건어물 세트도 아내에게 칭찬 받을 경품이었다.

행사가 사은골프대회이니만큼 디지털피아노와 기타는 모교 교수에게 양보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경품 추첨이 시작됐다. 아니나 다를까 피아노와 기타의 첫 주인은 교수가 아닌 동문들. 아쉬워하는 동문들에게 김종섭 동문은 추첨 기회를 주며 분위기를 ‘업’ 시켰다.

좌로부터 김종섭 스페코·삼익악기그룹 회장, 경품 대상을 받은 김재필 교수, 경품을 양보한 이경하 동문

그렇게 디지털피아노를 갖게 된 행운의 주인공은 김재필 재료공학부 교수. 기타는 장정주 정보화본부 부본부장에게 돌아갔다. 김재필 교수는 “아내가 음악 전공자가 아님에도 피아노를 좋아해 10년간 취미로 해 왔다”며 “전자피아노를 너무 갖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생겨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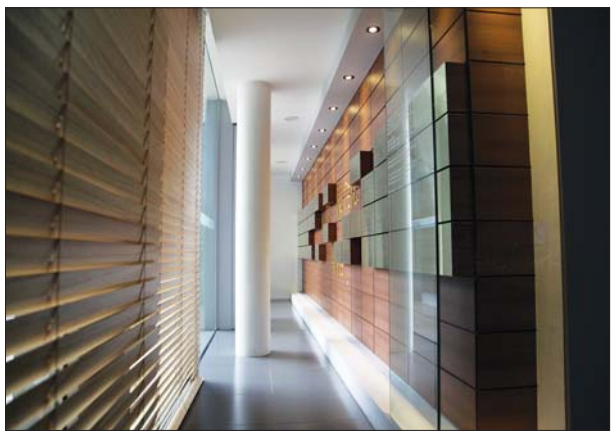
경품을 모두 받지는 못했지만, 본회에서 참존 화장품세트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이 협찬한 골프티셔츠가 모두에게 제공돼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벼웠을 듯.

또 이날 행사를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임광수 명예회장이 골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며,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과 이금기 일동제약 명예회장이 음료와 요거트 제품을 협찬했다.

〈김남주 기자〉

모교 교수 초청 사은골프대회 수상자

수상내용	이 름	단과대학
동창회장상	김선진	사범대학
모교총장상	박영민	사범대학
메달리스트(남)	남상구	웰에이징시니어과정
메달리스트(여)	김정자	보건의료정책과정
롱기스트	유종수	신문대학원
니어리스트	이병훈	약학대학



모교의 전사자 기념공간이 해외 대학과 비교가 된다. 왼쪽 사진은 모교 IBK 커뮤니케이션센터 서울대 홍보관(SNU Hall)에 조성된 6·25 순국자 기념 공간으로 좁은 구석에 배치돼 들어가 보기가 여의치 않다. 가운데 사진은 1932년 건립된 하버드대 '메모리얼 교회(Memorial Church)' 내부. 교회 한쪽에 '희생(The Sacrifice)'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조각물을 만들었고 세계대전, 베트남전 등에서 전사한 동문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 넣었다. 오른쪽 사진은 프린스턴대 본관(낫소홀) 내부 모습. 천장과 벽에 이 대학 출신으로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에서 숨진 전몰자의 이름을 새겼다.

서울대생 6·25 참전 순국자는 29명밖에 없을까

20명 동문 확인되면 49명으로 늘어

〈1면에서 계속〉

서울대 기록관은 지난 2009년 '문교 10년사'의 '전몰학도명단'을 통해 19명의 서울대 전몰자를 새롭게 찾아냈지만 이 중 제적등본, 유족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인된 동문은 송득규(약대) 동문 한 명밖에 없다.

모교 기록관 김봉은 조교는 "2009년 순국희생자 추모사업으로 새롭게 19명의 전몰학도명단을 발굴했지만 실제 서울대 학생이었는지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 그 근거가 된 '문교 10년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기록관에서 찾은 19명 중에 학적(재학생 명부 포함)이 확인된 동문은 다음과 같다. 박동성, 우원덕, 전홍규, 권면주, 박관용, 이상덕, 김상규.

학사과에서 학도병 전사자 자료와 비교해 학적을 확인한 동문은 구본우(문리대), 우원덕(문리대), 조성관(문리대), 노갑병(법대) 동문이 존재한다.

홍두승 명예교수가 최근 모교에 넘겨준 자료에는 김종우(공대), 김영식(상대), 김명철(농대), 김성건(법대), 나병서(법대), 한평교, 이순택(농대), 한진영(문리대), 심 일(사대) 등이 있다.

동창회에 글을 보내온 서안희(간호63-67) 동문의 오빠 서찬식(약대) 동문, 사범대학 전몰추모비에 기록된 박동성 동문을 비롯해 실제 순국 동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국자 기리는 데 진보·보수 무의미

지난해 서울대 6·25 전쟁 관련 기념시설 건립에 사용해달라고 5백만원을 기부한 박윤서(고고인류69-75) 동문은 "현재 서울대 6·25 기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면서 "기부 기사가 나갔을 때 동참하겠다며 호응하는 동문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모교 재학생 6·25 참전 전몰자 명단

이 름	학과(학년)	이 름	학과(학년)
권석홍	섬유3	전성재	의예1
김기태	기계3	박관민	법학3
김재권	조선항공1	박승환	법학4
김정세	채광1	장정근	법학1
문창열	건축1	김명훈	교육2
박무근	기계2	김철기	사회2
선우창범	화학2	이건형	사회2
이준익	전기3	이기구	영문1
이진묵	항공조선3	김내순	경제3
정태용	섬유3	김중만	경제3
한경인	토목3	정해봉	수의학1
윤필효	농학1	박승익	의학3
정상순	축산2	이진형	치의학3
김선용	정치1	송득규	약학3
김세환	국문4		

그는 "서울대에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동문들을 기념하는 '민주화의 길'은 조성돼 있는데 6·25 전쟁에 나가 희생한 동문들을 기리는 공간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국, 영국의 명문대학들이 참전 희생 동문들을 기리는 문화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 본보 논설위원은 2014년 9월호 느티나무 광장에서 "애국에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모교에 적을 둔 채 대의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이 후배 된 자의 도리임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6.25와 서울대'를 주제로 대학史포럼을 열기도 했던 최종고 법학과 명예교수는 "결국 이런 모든 것은 본부 측에서 의지를 갖고 상설연구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동 문 기 고

누가 서찬식을 모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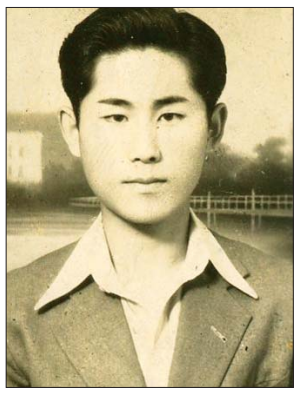
徐 安 姬(간호63-67)동문

6·25 당시 만 6세 미만의 막내인 내게는 오빠가 세 분 있었다. 나의 큰오빠 서찬식은 6·25 당시 서울대 약학대학 2학년 학생이었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승무도 잘 추고 단소도 잘 불었다. 사진 찍기도 좋아했고, 단아한 용모의 큰오빠는 장난기도 많았다고 한다.

6·25 나던 해 8월 16일에 장충동 공원 부근의 우리 집으로 인민군 세 명이 갑자기 찾아왔다. 6·25 당시에 대한중석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상무이사이신 우리 아버지를 인민군 사무실로 모시고 가 물어볼 게 있다 하며 염려스러워 묻는 엄마에게 삼일이면 곧 돌아오신다고 몇 번이나 염려 마시라고 안심시켰다. 그것이 내 일생에 아버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큰오빠는 막내 여동생인 나를 무척 귀여워했다. 6·25 전쟁이 진행되자 큰오빠는 어린 여동생이 전쟁통에 영양 부족이 될까봐 그 전쟁 중에 암시장에 가서 계란을 한 줄씩 사서 엄마 장롱 속에 넣어놓고 한 개씩 삶아서 내게 줬다. 엄마가 네 살 위인 셋째 오빠도 좀 주라고 해도 나만 꼭 한 개씩 삶아서 줬다.

우리는 1·4 후퇴 무렵 부랴부랴 큰고모네가 트럭을 한 대 구해서 피난하려 했다. 큰오빠는 바로 그 무렵 군 징집 영장이 나왔다. 어린 나는 속으로 큰오빠도 같이 트럭 타고 피난갔으면 했다. 큰오빠는 집에 있는 호랑이 담요로 나를 싸 안아서 피난행 트럭에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안자(어려서 집에서 부르던 이름)는 착하니까 언니 말 잘 듣고 있어" 하고 몇 번이나 내게 당부를 했다. 그것이 나와 큰오빠와의 마지막이었다.



서찬식 동문

엄마는 피난행 트럭에 타지 않고 큰오빠와 장충동 집에 남으셨다. 내가 떠나고 나니 큰오빠는 "안자가 없으니 집이 빈집 같네" 하고 몇 번이고 엄마한테 말하며 허전해했다. 그러면서 "고거 잘 지낼까? 엄마 보고싶어 안 할까?" 하다가도 "고게 야무지니까 잘 지낼 거야" 하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빠를 군대에 떠나보내고 엄마가 우리가 피난한 대전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큰오빠가 나를 떠나보내고는 암시장에 가서 '허쉬' 초콜릿을 몇 개 사서 엄마보고 나 갖다주라고 줬다고 하신다. 나는 지금도 '허쉬' 초콜릿을 볼 때마다 큰오빠 생각을 한다. 큰오빠는 그 전쟁통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동생의 성탄 선물을 준비하고 어린 내게 편지도 썼다. 나는 생각한다. 큰오빠는 입영 전날 무슨 생각으로 그 어린 나에게 편지를 썼을까?

큰오빠는 입영 후 곧 육군 소위가 됐다. 피난지 대전 셋방집으로 언니에게 보낸 큰오빠의 편지가 한두 번 왔다. 매번 편지에 아버지가 유별히 예뻐하시던 나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아울러 장남인 자기가 이런 힘든 때에 집안을 못 돌본다고 누나한테 죄송하다며 조금만 참으면 자기가 군에서 돌아오고 납치돼 가신 아버지도 돌아오셔서 다시 행복한 집안이 될 것이라고 언니를 위로하는 장남의 모습을 보여줬다. 겨우 대학 2학년밖에 안 됐던 큰오빠였다.

한두 번 큰오빠 편지를 받은 후 하루는 피난 셋방으로 군인이 찾아왔다. 무엇인가 엄마한테 전하고 갔다. 그 군인이 돌아간 후 엄마와 언니의 통곡이 터지고 대성통곡이 끊어지지 않았다. 영문을 몰라하는 어린 나를 같은 셋집에 사는 젊은 부인이 구멍가게로 데리고 갔다. 가서 사탕과

“졸업 후 전쟁 참전해 전사한 동문도 찾아야”

1996년 개교 50주년 때 6·25 전몰자 발굴 주도

洪 斗 承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서울대와 6·25’ 기획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인물이 홍두승(사회68-72)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다.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 로비 벽에 새겨진 ‘서울대 재학생 한국전쟁 참전 전몰자비’가 그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1996년 당시 교무부처장으로 있으면서 전몰 동문 발굴에서 이름을 새길 돌 선택까지 모두 그의 주도로 이뤄졌다.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ROTC 장교로 복무하고, 군사회학을 전공한 그에게 6·25 참전 순국 동문들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5월 20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장을 맡아 마지막 정리 작업에 한창인 홍 명예교수를 서울 명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6월 모든 임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 1996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재학생 6·25 전사자 명단을 발굴하셨는데, 배경 설명을 해 주시죠.

“1995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 교무부처장을 맡았어요. 1996년 개교 5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6·25 전쟁에서 전사한 서울대 재학생들의 명단을 찾아내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하고 추모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졸업한 동문과 베트남전 참전 순국자까지 찾아내자고 했으나 너무 방대해서 재학생으로 범위를 좁혔어요. 미국, 영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은 참전한 동문들을 기리고 있거든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당시 보직교수회의에서 저의 제안이 수용돼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군사회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기쁜 일이었죠.”

– 명단 발굴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학적과 자료를 살펴보니 참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국방부의 전사자 명단에는 학교 기록이 없고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 고민하다 전사했다면 미등록 됐을거란 생각이 들었죠. 당시 미등록제적(학사 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된 것) 파일은 따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전쟁기간인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미등록 제적자를 살펴보니 1천1백명이 넘더군요. 그 명단을 갖고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부와 대조해 봤습니다. 전사자 명단이 약 15만명 됩니다. 당시 전쟁기념관 이재전 관장님이 적극 도와주셨고, 학적과의 김춘섭 선생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5명 정도가 서울대 재학생으로 추정돼요. 유족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소 찾기 등 행정작업 등을 학적과 직원들이 다 했어요. 그럼에도 결국 한 명만 동문으로 확인됐습니다. 1천1백명 미등록 제적자를 15만 전사자 명단과 대조해 한 명 찾은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싶어 서울대 출입기자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서울대생 전사자를 찾는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전사통지서를 가져오시기도 했고요. 전사자들이 대부분 미혼이어서 그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모친이 살아 계신 경우가 있었고, 다수의 경우는 조카들이 신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명의 동문을 찾아냈어요.

지금 문화관 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간단한데, 사실 언제 어느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기록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매화장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군인이 사망하면 군의관이 의견을 써놓는 겁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를 했죠. 전사 지역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엔 소속 사단에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 그렇게 힘들게 찾았는데, 기념비는 발길이 뜸한 곳에 만들어졌어요.

“장소 정하는데 의견이 분분했죠. 사실은 문화관 대강당 옆에 전시실로 쓰이는 공간을 생각했다가 잡음이 많아서 문화관 대강당 벽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좀 외지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란 의미도 있었고요.”

– 좀 더 크게 만들 계획은 없었나요.

“대학본부 앞에 충혼탑을 제안하기도 했죠. 문화관 벽면에 이름 새기는 것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충혼탑 건립은 예산 등의 문제로 논의조차 어려웠습니다.”

– 대강당 벽면에는 29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6명은 그 이후에 발굴된 것이군요.

“개교기념 행사를 마친 후에 4명의 유족에게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까 동문이 맞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장인인 김세환 동문입니다. 국문과 4학년 때 소위로 참전했다가 전사하셨어요. 그 외 두 명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이 돼서 올라간 것으로 압니다.

29명 동문 외에도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서울대 전쟁기념 시설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가면서 김영도(철학48-56) 동문이 함께 학도병으로 갔다가 전사한 한평교 동문의 명단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한희영 전 경영대 학장님이 그 분의 형님 한진영 동문의 기록을 주시는 등 총 9명의 추가 명단이 입수돼 얼마 전 기획처에 전달했습니다.”

– 이번에 주신 명단과 모교에서 확인 중인 동문을 포함하면 전체 전몰 동문 수는 40명이 넘겠네요.

“육군본부의 학도의용군 자료에는 서울대 재학생 전사자가 43명인가, 46명인가로 나와요. 명단 없이 숫자만 나와 누구인지 확인은 어렵고요. 사실 그 이상이 참전해 희생됐을 텐데, 다 밝혀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 동문 확인 작업에서 학적과 기록이 기본이 됩니다만, 학적과에 없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6·25 전쟁 중 소실된 자료가 많아요. 성적표 뒤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경우도 있고요. 1950년 그 해는 6월 1일이 개강이었어요. 입학해서 3주만에 전쟁이 난 겁니다. 당시 입학생들은 동기들도 확인해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유족들이 사진이나 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가져오면 학적부에 없어도 인정을 해 주나요.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면 대학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장에서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살아 있는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 죽어 간 사람들을 느끼며 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죽으면 그와 같이 대우받고 기려질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재학생 중에서 전사자 명단을 찾는 데 많은 신경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졸업생 중 전사한 분들의 명단을 찾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주 기자〉

“큰오빠는 6·25 전쟁 말기 싸움이 가장 치열했다는 백마고지 싸움터에서 오른쪽 다리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 이동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한 출혈로 숨졌다”

서찬식 동문이 참전 중 여동생 서안희 동문에게 보낸 편지

삶은 번데기 한 봉지를 사서 내게 안겨줬다. 나는 영문을 몰라했다.

큰오빠가 6·25 전쟁 말기 싸움이 가장 치열했다는 백마고지 싸움터에서 오른쪽 다리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 이동 병원에 옮겨졌으나 심한 출혈로 숨졌다고 하는 전사통지서였다. 큰 출혈로 의식이 가물가물해 가는 나의 큰오빠는 무슨 생각을 끝까지 했을까? 아버지가 안 계신 우리 집과 어린 나를 의식이 있는 끝까지 생각하고 우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큰오빠를 생각할 때마다 아프게 나의 마음을 건드린다.

서울 수복 후 들으니 우리가 살던 장충동 집에 지프차 탄 젊은 육군 장교가 와서 빈 집을 샅샅이 둘러보고 갔다고, 피난을 안 가고 남아 있었던 동네 할머니가 엄마한테 알려줬다. 엄마는 내가 피난가지 말고 집에 남아있었으면 우리 찬식이를 한 번 더 봤을 텐데 하며 몇 번이고 후회와 한탄의 말씀을 되뇌셨다.

나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조교 시절 결혼해 바로 미국으로 왔다. 남편이 박사 논문 준비로 학교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나도 함께 그 도서관에 갔다. 6·25 당시의 한국전쟁 모습을 사진에 담은 LIFE 잡지를 보기 위해서였다. 혹시 인민군에게 잡혀 이북으로 끌려가는 아버지 모습이나 육군소위인 큰오빠의 모습이 찍혀있지나 않을까 해서였다. 사진과 기사를 모두 찾아 읽어봤지만 LIFE지에는 자기 나라 국민인 미군들 모습 위주로 게재돼 있었다.

한번은 이모들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다. “언니, 언니는 그런 큰 일을 당했는데 남편이 더 마음에 아파? 아니면 아들이 더 마음에 아파?”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좀 잔인한 질문같이 생각돼 엄마가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엄마는 “남편을 생각하면 살을 에이는 고통이고 아들을 생각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엄마의 그 말씀은 나의 뼛속까지 와 닿았다.

엄마는 큰오빠가 전사한 후 나라에서 나오는 얼마의 그 돈에 손을 대기를 꺼려하셨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에 손을 대…” 하시는 것이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도 내내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건 큰오빠가 엄마한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용돈이에요”라고 말해드렸다. 그랬더니 엄마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다. 그 이후는 “나는 큰애가 용돈을 주고 있어” 하시며 친구분들과 여행하시는 데 보태 쓰셨다. 큰오빠가 드린다는 게 그나마 엄마의 애통함을 잠시나마 보듬어 드렸는지….

한국 방문시 엄마와 같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큰오빠 육군 소위 서찬식 묘소 앞에 섰다. 준비해간 빨간 장미 꽃송이들을 묘소에 꽂아 드리고 엄마와 나는 묘비에 한없는 눈물을 뿌렸다.

큰오빠는 1931년 1월 2일 생으로 1951년 5월 9일 육군 제3이동외과병원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 아름다운 꽃송이가 막 피어날 때 모진 전쟁의 피바람에 떨어진 큰오빠 서찬식을 잊을 수 없다.

보성파워텍

국내 첫 신재생 연계형 ESS 사업자 선정

보성파워텍 전경

[에너지경제 천근영 기자] 보성파워텍이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발전회사가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국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대형 ESS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런 형태의 사업은 발전 공기업이 동일한 사업모델을 계획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사업 확산이 기대된다.

남동발전은 영흥화력 내 46㎿ 규모 풍력발전소 ESS 연계 구축 사업자로 보성파워텍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배터리만 16㎿h로 약 20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4㎿급 대용량 전력변환장치(PCS)도 함께 들어간다. 배터리와 PCS를 합쳐 40피트 컨테이너 20개 규모다.

중대형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LG화학, PCS는 효성이 각각 공급한다.

보성파워텍은 전력 분야 중전기기 기술을 토대로 ESS 구축에 컨테이너가 아닌 가설 건축물로 설비를 구성할 예정이다.

보성파워텍은 안정적인 ESS 운영 기술 바탕 위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기술로 사업권을 따냈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용 ESS는 발전기를 운영하거나 일정한 발전량을 유지하는 데 주로 활용됐지만 계통에 직접 연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동발전 한 관계자는 "검증된 대기업 기술과 제품에다 현장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설비 기술에서 보성파워텍이 평가 우위에 있었다"며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에 대형 ESS 구축으로 안정적인 계통연계 발전과 영흥화력이 친환경 발전 메카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보성파워텍은 이 설비를 오는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이 설비가 구축되면 국내 최대 풍력설비(46㎿)는 물론 1㎿급 전자동 무인태양광발전소와 해양수력발전소까지 갖춘 친환경 발전소로 등재된다.

(전자 신문 5월31일자)

세계 야생화 박물관 "방림원" 야생화의 천국!

세월과 함께한 야생화를 계절따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주도 방림원입니다.

방림원은 한 여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30년간 수집한 야생화를 약 5천여평의 부지에 테마별로 아기자기하게 전시해놓은 테마그린파크입니다.

방림원의 관람순서로는 실내전시관, 천연화산석 송이돌로 이루어진 음이온이 방출되는 방림굴, 사람크기의 토피어리에 살아있는 야생화가 식재된 야생화 무도회장, 야생화산책로, 제주 곶자왈을 연상케하며 자연을 살린 난전시관, 세계각국의 희귀한 모양의 고사리관, 시원하게 흐르는 형제폭포와 그속에 개구리섬 폭포, 고산식물과 다육식물이 있는 특별관람코스 다육이관, 우리나라 자생종 100가지를 식재하여 만든 백화동산과 야생화로 만든 석부작과 분재가 어우러진 야외전시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림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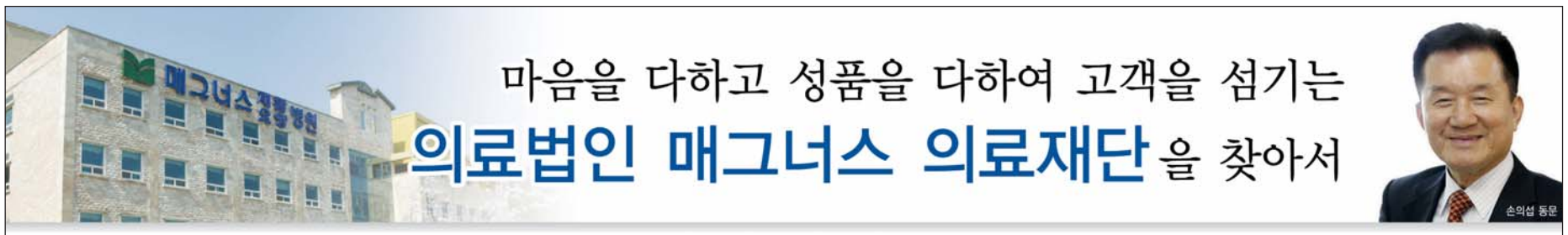
형제폭포

전체 관람로에는 개구리가 많이 보이는데 개구리는 방림원의 마스코트로 초창기 방림원 공사중에 개구리가 많이 발견되었고, 설립자인 방한숙 원장이 방림원공사중에 힘들어 울고있을 때 개구리가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것 같다고 하여 그때부터 개구리 관련된 물품부터 장식품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하였습니다.

그 수집품들의 일부는 각 관람로에 전시되어있으며, 또 일부는 방림원 매장 2층에 세계화폐와 함께 전시되어있습니다.

방림원은 약 3천여종의 각양각색의 살아있는 야생화들의 소박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며, 세월과 정성으로 가꾸어진 아름다운 테마 그린 파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경면 용금로 864 TEL. 064)773-0090
www.banglimwon.com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고객을 섬기는 의료법인 매그너스 의료재단을 찾아서

손의섭 동문

▶호텔급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

손의섭 동문은 기독교 장로로서 물질은 소유개념이 아니고 관리개념으로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5월8일 200병상으로 개원한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고객을 섬기는 일류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은 축령산을 마주보는 전경으로 서울에서 30분~50분 거리에 위치한 천혜의 청정요지 남양주 수동면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급 호텔수준의 건축설비를 구비하여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한방과 전문의의 진료와 양.한방 협진진료와 협력병원의 합심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호사, 간병인 등이 합심하여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

특히 보바스 전문 과정과 PNF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환자와 1대 1로 운동 치료를 실시하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매그너스요양병원 환우분들 중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매그너스요양병원 내에 목사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시는 매그너스교회가 있으며 또한 예배시간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다. ■문의전화 : 031) 595-0600

▶암환우만을 위한 암스트롱요양병원

암환우만을 위해 건립된 암스트롱요양병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가평역 15분, 서울 1시간 이내거리에 위치해 있는 병원이다.

항상 환자들의 휴게공간이 없어 안타깝게 여긴 손의섭 이사장이 환우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곳에서 환우들이 진정한 치유와 요양을 경험 할 수 있게 하고자 증축하였으며 새로 지어진 신관에는 황토병실 이외 카페와 식당, 강당, 휘트니스센터와 최근 개설한 통합의학 암센터로 총 110병상으로 운영된다.

잣나무숲으로 둘러 쌓여진 암스트롱요양병원은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삼위일체요법(심리요법+영양의학요법+운동요법)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암환우분들의 면역력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병원은 몸을 치료하기 이전에 마을을 치료하는 곳이다" 라는 설립이념에 맞게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환우들에게 양방(통증관리, 비타민, 미네랄요법, 킬레이션주사, 미슬토주사, M각테일주사, 세레나제요법 등)치료와 한의사의 한방 치료를 협진하여 최상의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는 웃음치료, 음악치료, 마음치료, 발마사지, 대체요법과 자연요법의 강의 등 취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창한 잣나무군락에서 뿜어 나오는 천혜의 피톤치드향이 풍부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풍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또한 환상적인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알맞은 전신 운동을 겸할 수 있다.

암환우 식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자재는 병원 옆 4,000여평의 무공해 친환경 텃밭에서 사시사철 공급되는 야채, 약초 등으로 환우들의 입맛을 돋우며 전문 영양사 2명이 맛있고 건강한 식탁을 뷔페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직접 갈은 신선한 녹즙과, 두유, 토마토즙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의학 암센터 개설

최근에 개설한 통합의학 암센터는 한의학과 현대 의료기기를 통합해 양·한방 협진 진료를 모토로 암 환자의 면역강화와 항암의 부작용,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 만족도와 치료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개설됐다.

통합의학 암센터에 갖춰져 있는 치료기구는 충분한 산소를 주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고압산소 치료기'와 자연 전계가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에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착안해 일본의 하라토시유키 박사가 개발한 제품인 '헬스트론 치료기'가 있다. 헬스트론 치료기는 상, 하부에 형성된 전기장에서 파생되는 기의 흐름이 몸 안의 생체리듬을 정상적으로 되살려 주는 기구이다.

고압산소 치료기, 헬스트론 치료기 외에도 '공기압 마사지기', '족욕기', '토마리온' 등과 니시의학에서 고안된 '붕어운동기', '모관운동기' 등이 있다. 이러한 치료기구들은 전신의 장기와 조직을 깨우고 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다.

암스트롱요양병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고가의 독일산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암부위에 집중적으로 고주파를 양방향에서 투사하여 암세포가 섭씨 43도 고열에서 괴사되도록 개발된 고가장비이다.

암스트롱요양병원은 상주하는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동산, 치료의 동산으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국내 TV 방송에서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

매그너스재활요양병원과 암스트롱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암스트롱요양병원 전경

독일산 고주파온열암치료기 사진

■문의전화 : 033) 263-8275

좌로부터 유홍종 동문, 이대순 동문, 김동건 회장, 안동일 동문

자랑스러운 법대인 3명 시상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김동건)는 지난 5월 28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금진호 前 회장, 김동건 회장,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건우 학장 등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23회 자랑스러운 법대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2014년도 결산 승인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올해 조직강화, 장학사업, 기념사업 등을 위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4억5천여 만원의 예산 보고를 진행했다.

이어 제23회 자랑스러운 법대인으로 선정된 이대순(법학53-57)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유홍종(행정57-64) 현대비앤지스틸 상임고문, 안동일(법학59-63) 홍익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게 패를 수여했다.

또 傘壽와 古稀를 맞이한 13회, 23회 동문을 대표해 이시화(행정55-61), 조용국(행정65-69) 동문에게 축수패를 증정했다.

이건우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는 9월 4일 서울 법대 120주년 기념행사를 동문들에게 알렸으며 2만 명에 달하는 모교 법대 출신 동문들의 재밌는 통계도 소개했다.

현재까지 모교 법대는 국무총리 9명, 장관 1백44명, 대법관 97명, 헌법재판관 30명, 검찰총장 22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3명 등을 배출했으며 이 같은 통계를 내년 완료를 목표로 정리작업 중임을 전했다. 〈변정수 기자〉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김일성, 박헌영, Acrylic on canvas, 500×300cm, 2013

徐庸宣 作

〈작가약력〉

▲1978 모교 회화과 학사.졸업
▲1982 모교 서양화과 석사졸업
▲1986-2008 모교 서양화과 교수 역임
▲2009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2014 조선일보사 이중섭미술상 수상
▲서울, 베를린. 뉴욕. 멜버른, 오사카 등지에서 다수 개인전
▲현재 작가활동

※ 작가 한마디 : "나는 작가로서 남한에서의 이 풍요로운 소비적 생활이 평화롭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다."

좌로부터 성낙인 총장, 최명진 전임 회장, 구재옥 회장

전 동문 참여 모교에 1억원 기부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구재옥)는 지난 5월 18일 모교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생활과학대학동창회 최명진 전임 회장과 구재옥 회장, 생활과학대학 여정성 학장 등 주요 학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최명진 전임 회장 임기 때 전 가정교육학과, 가정학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등 전 학과의 모든 기수들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다.

구재옥 회장은 "최명진 전임 회장께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걸고, 문자로 독려해 전 동문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1956년 '목련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생활과학대학동창회는 그간 학제 개편에 따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및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졸업생 동문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교 발전을 지원해왔다.

한편 동창회는 5월 22일 서울 동숭동 한국방송통신대 신관에서 가정교육과 주관으로 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가정교육과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이혜숙 동문이 '우리의 삶과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젊음과 아름다운 삶에 대해 특강했다. 〈박수진 기자〉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2백30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5월 1~31일 3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2백27명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2백30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문영지(상학59졸) 동문 : 1958년 총장 상장 ▲박원규(농공60-64) 동문 : 졸업증서, 성적표, 수원공과대 신관 앞 사진, 신입생야유회 사진 등(사진) ▲목창수(생물교육66-73) 동문 : 수업노트류, 학생증, 앨범, 강의일람표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1)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2)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3)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4)박물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 의 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or.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담당자 : 김진현 대리
핸드폰 : 010-7224-075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
E-mail : archives@snu.ac.kr
주 소 : (151-0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회원 3천명 돌파 … 졸업생과 재학생 만남의 장 열려

공대 여성동창회

지난 5월 30일, 모교 미술관에서 뜻 깊은 만남의 장이 열렸다. 공대 여성동창회(회장 류전희)와 여성 공대 재학생이 함께한 '제1회 윈즈(WINNS, Women In eNgineering Networks SNU의 약자)데이'가 개최된 것. 2015년을 기준으로 공대 여성 동문은 3천명을 돌파했다.

이번 행사는 이를 기념하고 재학생-선배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숙원이 반영된 것이다. 2부로 나뉘어 구성된 행사는 자랑스러운 공대동문상을 수상한 지 순(건축54-58) 동문의 기념사를 비롯해 선후배 간에 진솔하게 고민을 나누는 패널 토론, 직업별 친목모임 등으로 알차게 진행됐다.

류전희(건축82-86) 회장은 행사에 앞서 "서울공대 여성 동창회는 모든 공학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동문들로 이뤄진 흔치 않은 동창회"라며 "각계에서 활약하시는 선후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 자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축사에 나선 이건우 공과대학장 역시 "이제는 여성 공학인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자평하며 "동문들 간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다양한 연령층, 직업군을 선정해 각자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들은 각자 모교 공대 여성 동문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그들

만의 고충,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움을 활발히 주고받자는 이야기가 두드러졌다.

여성으로 처음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을 수상한 지 순 동문은 "환경적으로 어려웠음에도 각계에서 활약하는 서울 공대 여성 동문을 볼 때마다 흐뭇하다"며 "자신이 하는 일이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뜻을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박도현(컴퓨터공학12입, 공대 여학생동아리 H2O회장) 학생은 "선배님들과 만나는 자리에 항상 목말랐었고 이번 행사가 시작점이 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동창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규모에 상관없이 졸업한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방준휘 학생기자〉

宋彦鍾·吳應準동문 10년 이상 지부회장직 헌신

송언종 동문

오응준 동문

본회(회장 서정화) 산하 27개 지방지부 가운데 10년 이상 지방지부 회장을 맡아 헌신해온 동문들이 있어 모범이 되고 있다.

광주·전남지부 송언종(행정56-60) 회장과 대전·충남지부 오응준(약학58-62) 회장은 지난 2003년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지역사회 동문들의 규합과 발전을 이끌어왔다.

본회는 추후 이 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서정화 회장은 "총동창회는 매년 신년교례회에서 지방지부 회장을 지낸 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회장으로 봉사 중인 동문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며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 및 동문 상호간의 친목 도모에 열과 성을 다한 이 분들의 공을 높이 받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언종 회장은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 제2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경기도 부지사, 내무부 차관, 전라남도 지사, 광주광역시장,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에 힘써왔다. 현재 법무법인 21세기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오응준 회장은 대전대 총장, 웰텍코리아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주차협회 이사장, 주간인물(weekly people) 명예회장과 한·중·일 친선교류협회 회장을 맡아 동북아 민간 교류에 힘쓰고 있다. 대전충남지부의 장학금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만평

李 元 馥

81학번 주관 '상록의 날' 성황이뤄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이현수)는 지난 5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명과학대학에서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의 날 행사를 거행했다.

81학번 동기회(대표 박석근)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제13회 상록인 대상 시상식, 81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 축하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상록인 대상에 정영선(농학60-64) 서안 대표, 김윤배(농공61-66)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성진근(농경제64-68)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이상무(농학67-7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선정돼 상패를 받았다.

최봉호(농학56-60) 충남대 명예교수는 상록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또 올해 농협대학장에 취임한 남성우(축산69-73) 동문, 전북대 총장에 취임한 이남호(임산가공78-84) 동문, 국립수목원장에 취임한 이유미(임학81-85) 동문에게는 축하패를 전달했다.

81학번 졸업 30주년 기념사은회에서는 지난 시절을 회고하는 동영상 상영과 함께 스승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81학번 동문들은 무대에 올라 '스승의 은혜'를 열창하기도 했다. 동기회는 이날 2천만원의 장학금을 동창회에 기부했다.

한편 이날 상록인대상을 수상한 정영선 동문이 '삶과 조경'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재학생에 장학금 수여
춘천지부동창회

춘천지부동창회(회장 임정근)는 지난 5월 12일 춘천시내 중식당 회영루에서 2015학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박승한(지리교육53-57) 고문, 임정근(의학70-76) 회장, 안재호(사법87-92) 이사, 이주홍(외교88-93) 사무국장, 김진태(공법83-87) 국회의원, 홍윤기(중문88-94) 동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임정근 회장이 오예준(국사11입) 군, 허남주(중문12입) 양, 손승범(생물13입) 군, 고진수(의예14입) 군 등 재학생 4명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은 지난 2010년부터 개최돼 춘천 출신 모교 진학자들의 면학을 독려해왔다. 2012년부터는 장학생들에게 학부 재학 4년간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9백여 동문 가족 모교로 나들이 왔어요"

사생대회에 참가해 그림실력을 뽐낸 동문 자녀들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성기학)는 지난 5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9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제15회 친선산행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은 접수를 끝내고 가족 또는 동기별로 삼삼오오 짝을 이뤄 왕복 2시간 코스의 관악산 등반을 진행했다. 산행에 참가하지 않은 동문과 가족은 버들골에 준비된 천막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담소를 나눴다. 동문 자녀들은 동창회에서 준비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받아 관악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광을 답아냈다.

사생대회 결과 이윤수(국제경제88-94)·정호선(경영93-98) 동문의 자녀 이승유 어린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영원무역에서 협찬한 어린이용 재킷, 가방, 신발, 티셔츠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경품추첨에선 김정웅(경제60-64) 동문이 행운의 주인공이 돼 대림산업 이준용(경제56-60) 회장이 협찬한 오토바이를 받았다.

이날 행사를 위해 성기학 회장이 참석자 전원에게 배낭을 선물했으며, 김석수(자원공학77졸) 동서식품 회장이 과자와 커피, 최성원(경영88-92) 광동제약 부회장이 음료를 협찬했다.

또 동창회에서 생맥주와 24회 동기회에서 막걸리를 나눠줬으며, 여성 참가자들에게는 조갑주(경제58-63) 신송홀딩스 회장이 협찬한 신송제품을 선물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5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모교 은사와 동창회 회장단, 모교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 기념 사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김남주 기자〉

왔구나! 풍산마당!

버들골 옛 노천강당 자리에 원형공연장 풍산마당이 드디어 준공됐다. 류 진(영문78-83) 풍산 회장이 52억원을 쾌척해 조성된 이 공간은 건축면적 794.38㎡(약 2백40평)의 지상 2층 건물로 객석기준 수용인원은 2천명 내외이다. 준공식은 7월 중 예정. 동문들의 가을 행사 예약이 쇄도할 듯. 〈변정수 기자〉

'자선골프대회'로 동문 화합 다져

치대·치대원총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 총동창회(회장 김재영)는 지난 5월 21일 경기도 용인 한화플라자CC에서 제18회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어느 해보다 참가신청이 많아 대회 2주 전에 신청접수를 마감했다.

이날 김재영 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재일 모교 치전원장, 류인철 치과병원장,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박준우 대한치의학회장 등 많은 치과계 인사가 참석했다.

총 1백43명의 동문이 참석해 36팀으로 진행한 이날 대회에서 기수 대항전으로 진행된 단체전은 42회(88년 졸업)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44회가 2등, 40회가 3등에 올랐다.

또 개인전에서는 타이거코스에서 임종호(치의학82-88) 동문이 78타, 라이언코스에서는 황재홍(치의학88-94) 동문이 81타, 여성부에서는 이현경(치의학83-89) 동문이 85타로 메달리스트상을 받았다.

아울러 신페리오방식 우승은 우시택(치의학94-00) 동문, 2등은 허준호(치의학82-88) 동문, 3등은 김민겸(치의학80-86) 동문이 차지했고, 특별상으로 임채균(치의학53-57) 동문과 최봉섭(치의학53-57) 동문이 최고 기수상을, 권세영(생명과학02-06) 동문이 최연소 참가상을 받았다.

김재영 총동창회장은 자선골프대회에 참석한 동문에게 감사의 인사말과 함께 준비위원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내년 6월 5~6일 용평에서의 동문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금된 자선기금은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3회 한마음 체육대회로 친목

FNP동창회

식품영양산업CEO과정동창회(회장 최순태)는 지난 5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공대 운동장에서 제3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순태 회장, 모교 생활과학대학 여정성 학장, 지근억·황금택 교수 등을 비롯해 동문과 동문가족 1백70여 명이 함께 했다.

백팀(1기·4기·5기·6기), 청팀(2기·3기·7기)으로 나뉜 동문들은 운동장에 모여 줄다리기, 달리기 등 명랑운동회 종목들을 겨루며 동문 간 단합을 다지는 즐겁고 유쾌한 축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는 백팀이 승리했으며 대회를 위해 최순태 회장을 비롯해 각 기수회와 동문들이 1천3백여 만원의 금품을 협찬했다.

친목 골프대회에서 9기 우승

IFP동창회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권기대)는 지난 5월 16일 충북 충주에 위치한 중원GC에서 권기대 회장, 최경한 사무총장, 허윤정 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인문대학 변창구·이영목·김건태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후 시상에 앞서 권기대 회장의 색소폰 연주로 참가한 동문들의 흥을 돋웠으며 차기 골프회장에 최명수(2기) 동문을 선출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수 우승 : 9기 ▲기수 준우승 : 1기 ▲메달리스트 : 송재용(1기) ▲우승 : 김종출(11기) ▲준우승 : 조재돈(11기) ▲롱기스트 : 최홍석(7기) ▲니어리스트 : 류희원(7기)·강래영(9기) ▲여성니어리스트 : 김숙경(8기) ▲다파상 : 김상교(13기) ▲다버디상 : 곽운석(13기) ▲다보기상 : 박준수(12기) ▲베스트드레서상 : 정근이(7기)

한편 이날 대회를 위해 권기대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동문과 기수회에서 1천8백여 만원의 금품을 협찬했다. 〈변정수 기자〉

제12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7월 19일 오전 9시30분 모교 농생대 제3식당

친목과 단합의 장이 될 제12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오는 7월 19일 개최합니다.

◆일 시 : 2015년 7월 19일(일) 09:30~17:00
◆장 소 :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75-1동)
◆참가대상 :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단, 아마 7급 이상)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진 행 : ①단체전 :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 : 棋力別 64명 이내
※총 호선(덤 6점반 공제), 변형스위스 리그
◆신 청 : 2015년 7월 10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or.kr로 신청
◆참 가 비 : 없음(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기 타 :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오시는 방법
– 승 용 차 :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본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오른쪽 농생대 건물 주변에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5513번을 타고 관악캠퍼스 내 농생대 건물에 하차
◆문의사항 :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sartorius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은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분야에 대한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CRO Service, Biosafety Study, Biosimilar Characterization, cGMP Consulting, QC/QA, QbD & PAT, Filtration, Fermentation & Cell Culture
Process Development/Validaiton, Downstream BioProcessing, Single Use Manufacturing, BioProcess Engineering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 T. 031. 622. 5722 F. 031. 622. 5799 Service Center 1600. 0288 www.sartorius.co.kr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여행입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 생각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발은 실천이고, 도전입니다.
늘 생각하되, 열정으로 도전하십시오.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대학!**
전북대학교가 도전하는 젊음과 함께합니다.

천년의 웅비
전북대학교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전북대의 새로운 변화

- 전인 · 전일 교육의 장 '레지덴셜 컬리지'
- 글로벌 넘버원 학문 분야 집중 육성
- 모범생을 넘어 모험생을 키우는 '오프캠퍼스'
-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캠퍼스 둘레길 조성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생활대학동창회 丘在玉회장
(한국방송통신대 명예교수)

"명부 갱신·동문 네트워크 강화"

얼마 전 생활대동창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한국방송통신대 구재옥(가정교육68-72) 명예교수는 구인환 모교 명예교수의 장녀다. 구재옥 회장은 지난 2006년 2월호 동창회보에 구인환 동문의 서울대 가족 10명 중 한 명으로 소개됐다. 구 회장은 "아버지께서 '가족 중에 서울대 출신이 이렇게 많은데 동창회장은 한 명도 없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가정교육과 마지막 학번인 구재옥 신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가정교육과 동창회장을 맡아 최명진 전임 회장을 도왔다. 그 인연으로 전임 회장으로부터 세 학번을 건너 뛴 그가 회장에 추대될 수 있었다.

"저희 동기 중에서도 그렇지만 66, 67학번 선배님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회장을 맡게 돼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그래요. 작년에 정년을 하고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열심히 봉사해야죠."

구 동문이 회장을 맡은 직후 생활대동창회가 모교 발전기금에 1억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동창회 자체 기금도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모교에 기부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구 회장은 "기부가 최근 이뤄졌지만 전임 최명진 회장님께서 모두 하신 일"이라며 "동창회 기금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이번에 7천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제 임기 동안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전임 회장께서 연회비 모금 캠페인을 벌여 생활대 전 학과, 전 기수에게 20만원씩을 받아 약 8천7백만원을 모았어요. 임원들도 모두 동참하고요. 대단하죠. 돈 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각 기수 대표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독려해서 큰 일을 해내셨어요. 저도 그 기를 받아 나머지 3천만원을 차질 없이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생활대동창회는 가정교육과,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가정학과 동창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항상 함께 일을 한다. 분기별로 각 학과 동창회가 돌아가며 세미나를 열고, 정기총회, 홈커밍데이 등 큰 행사가 있을 땐 협력해서 일을 진행한다. 장학기금 운영도 본회에 맡겨 은행 이상의 이자를 받아 매년 후배들에게 1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2년 임기 동안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 회장은 "회원 명부를 새롭게 갱신하고 기존 사업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동문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모교 교육대학원 시절 모교의 부설 기관이던 방송통신대의 조교를 맡게 되면서 방통대와 인연을 맺었다. 그곳에서 남편 김영평(행대원71-73)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이후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스포츠영양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모교에서 분리된 방송통신대 전임 교수 1기 공채에 합격해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방송통신대에서 자연대학장, 평생교육원장, 학생생활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의과대학동창회 洪正龍회장
(동부제일병원 원장)

"장학금 규모 확대·결속력 다지겠다"

최근 의과대학동창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동부제일병원 홍정용(의학69-75) 원장을 지난 5월 19일 병원 진료실에서 만났다. 여전히 정형외과 진료를 보고 있는 그의 진료실은 아담했다. 환자 의자에 앉아 동창회보와 수첩을 주섬주섬 꺼내는 기자에게 "서울대동창회보는 어떻게 만드느냐", "광고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등 회보발행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의대동창회보를 격월로 5천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요. 어떻게 하면 동문들도 만족하고 동창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의대동창회는 단과대학동창회에서도 가장 틀이 잘 잡혀있는 동창회로 손꼽힌다. 연건캠퍼스에 함춘회관이라는 동창회관도 세웠고, 사무국 직원도 4명 정도 된다. 각 동기회와 지부 조직도 잘 갖춰져 있어 연락 가능 회원수도 8천명(총 회원 1만1천여 명)에 이른다. 장학사업 등 모교 지원 사업과 등산·테니스·바둑 대회, 미술 작품 전시 등의 동문 친목 사업도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 송년회와 정기총회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며 4백여 명 이상의 동문이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동창회를 맡은 회장은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조금은 수월한 측면이 있죠. 그래도 회장을 맡았는데, 기존 업무에 의존만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대 의대가 오래된 대학이다 보니 신흥 의과대학에 비해 결속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장학금 규모도 늘려야 하고, 모교에서 도서관을 새롭게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와야죠. 임기 초반이니까 동문들과 상의해서 하나 하나 방법을 찾아가려고요."

홍 회장은 모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수련 후 1980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1983년 동부제일병원을 개원하고, 1993년 풍산의료재단을 설립했다. 1997년에는 의료법인 창동제일의원을 개설했으며 2010년부터는 3백 병상 규모의 경기도립 노인전문 시흥병원도 수탁 경영해 오고 있다.

동부제일병원은 강북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이다. 한 때는 2백 병상이 넘기도 했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며 현재는 1백 병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오랜 병원 경영을 밑바탕으로 지난해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에 당선돼 3천여 회원사를 이끌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총무위원장을 거쳐 지금은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2012년 '젊고 강한 병협'을 내걸고 36대 병협 회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홍 동문은 내년 병협 회장 선거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능력이 부족해 여러 번 고사했지만 회장직을 수락한 이유도 모교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때란 생각이 컸어요. 병원협회 등에서 쌓은 회무 경험을 잘 살려 동창회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김남주 기자〉

medical beauty & health

건강 · 美 · 자신감으로 성공장수

청박병원, 청박메디美, 청박웰에이징
웰에이징센터
CHEONGVAK 여성내분비과 / 미용피부과 / 대사내과

미국 FDA승인 유일한 명품 레이저

질성형 하지 않고 사랑 받을 수 있는

모나리자 터치

수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요실금 · 질성형

모나리자 터치시술

외음부 화이트닝 · 질 건조증

1회 시술만으로도 효과는 확실하게!

코끼리 터치 = 질병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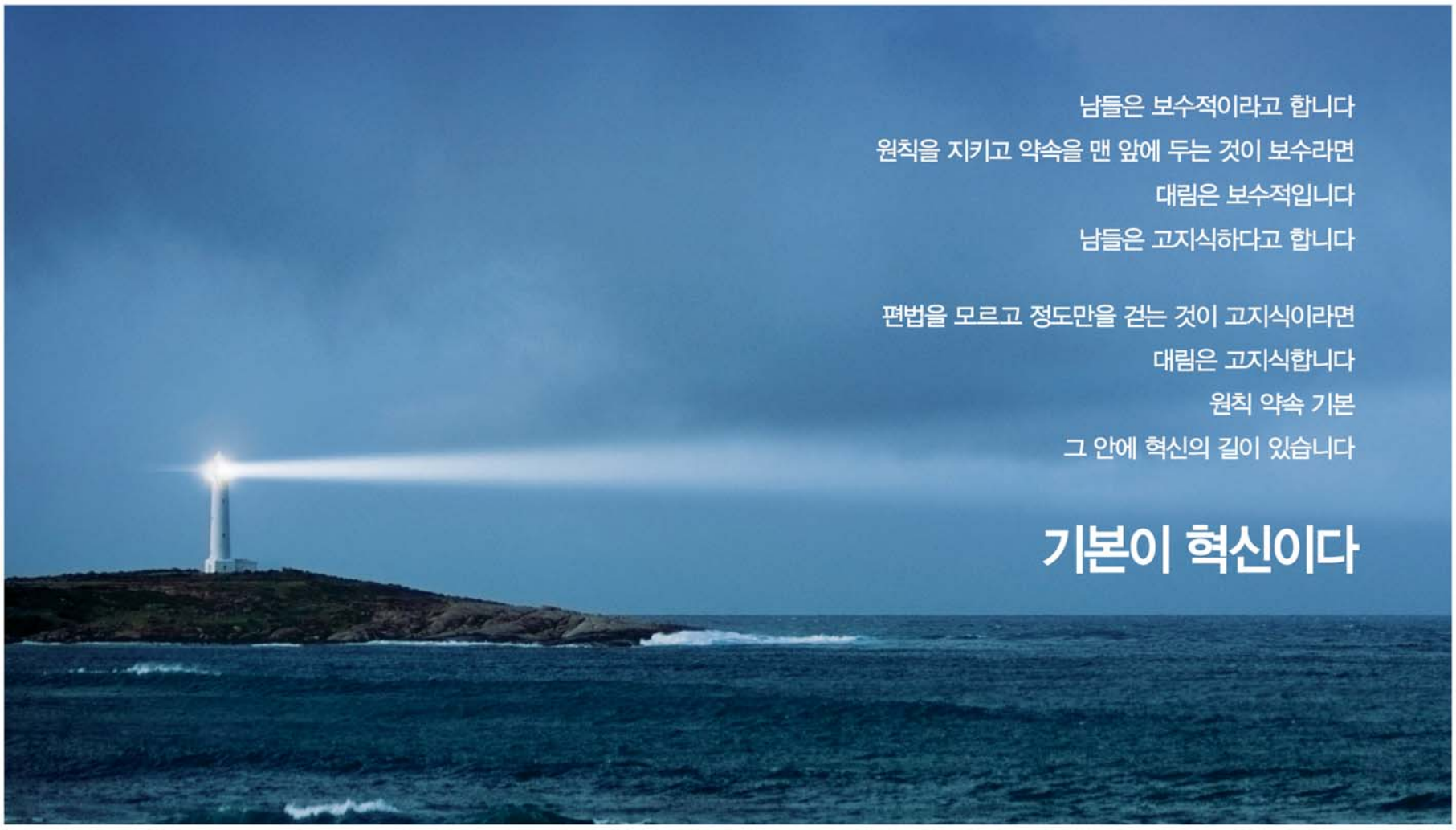
코끼리 검사 – 코끼리 진단(판정) – 코끼리 치료

건강을 위한 웰에이징의원 www.wellaging.best

NAVER 웰에이징의원 검색

피부미백 / 레이저질성형 / 폐경증후군 / 무기력증 / 대사장애검진-의64266

원장 유 박 영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8길 17 청박병원 Tel : 02-545-0131 Fax : 02-545-0130



DAELIM

田 龍 宙 iHQ대표

화제의 동문

콘텐츠·미디어사업 결합 시너지 창출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한류기업으로 발돋움"

스타 매니징·드라마제작 넘어 미디어업체 인수하며 '주목'

'별그대', '배용준',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에 또 다른 '스타 기업'이 있다. 전용주(경영86-90) 대표가 이끄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iHQ다. 정우성, 전지현 등 원조 한류스타를 배출한 싸이더스HQ를 전신으로 막강한 전통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곳이다. 현재 배우 장혁, 김우빈, 김유정 등과 가수 god, K팝 아이돌스타들이 소속됐으며 '피노키오', '뿌리깊은 나무' 등 드라마 제작 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코미디TV, 드라맥스 등 6개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CU미디어와의 인수합병으로 화제가 됐다. 이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와 폭스가 콘텐츠를 보유한 제작사와 미디어 유통망을 가진 방송사의 결합이라는 사업 모델을 취하며 세계 문화시장을 장악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 이러한 '빅딜'을 원만하게 성사시킨 데는 iHQ 부사장과 CU미디어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양쪽의 살림을 맡아봤던 전 동문의 힘이 컸다.

지난 5월 19일 서울 논현동 사옥에서 만난 전 동문의 비전은 확고했다. 세계 최대 문화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 승기를 잡겠다는 것. 합병 소식에도 현지 언론들이 '한류가 전략적 마인드를 갖추기 시작했다'며 기민하게 반응했다고.

"'겨울왕국'이나 디즈니가 1백년 동안 축적한 '공주들'은 디즈니의 고부가가치 자산이죠. 튼튼한 유통망이 뒷받침돼야 이런 '킬러 콘텐츠'를 대량생산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iHQ가 론칭한 한류채널 '케이스타'가 싱가폴에 들어가면서 iHQ가 만든 드라마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게 되죠. 한류 기업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현지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는 "아직까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인적 의존도가 높다"며 "한류 열풍도 드라마의 단편적 판매나 개인 수익에 그칠 뿐 현지 시장의 진짜배기 이익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류기업인 iHQ의 경쟁력은 높다.

전 동문은 IMF 시절 법무법인 김앤장의 회계사로 일하며 풍부한 '기업 공부'를 했다. 이어 '경영학 전공자로서 본연의 길은 기업'이라는 생각에 미개척 분야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뛰어들었다. 업계 특유의 역동성과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도 체질에 맞아 15년간 연예기획사와 방송사에서 전문경영인의 길을 걸어왔다.

"가장 처음에 한 일이 월트 디즈니 홈페이지에서 자회사 구조와 기업 조직도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디즈니가 음악, 영화, 유통, 채널 사업 등을 수직계열화하며 기업을 키워나간 부분에 주목했죠. 'in case of Korea'를 떠올리며 하나씩 벤치마킹해 나갔습니다.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디즈니만큼 강한 것이 한류의 힘입니다. iHQ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박수진 기자〉

양심 걸고 '1인 치과' 운영하는 강창용 동문

그린서울치과 강창용(치의학97-03)원장이 1인 치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을 전담하는 것은 물론 예약, 상담 심지어 수납까지 혼자서 한다. 그가 1인 치과를 고집하는 이유는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싶기 때문. 해서 그의 치과를 찾아오는 손님 대부분은 비싼 진료비가 부담스러운 형편이거나 다른 치과에서 받은 견적이나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수소문 끝에 찾아온 사람들이다.

강 동문은 금니나 임플란트 치료는 하지 않는다. 대신 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이나 레진 치료를 권하는 편이다. 만일 치아 상태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금니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상태가 어떤지 등을 상세히 알려준 뒤 다른 치과를 권한다.

이렇게 양심적인 치과의사, 서울대인답지 않나. 마포에 사는 동문들은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그린서울치과를 방문해 보시길.

프라카시 주한네팔인협회 사무국장

화제의 동문

네팔 몬순 시작 … 신속한 도움 절실

"고국 돌아가 보건의료제도 구축에 힘쓰겠다"

서울대서 학부·석사 마치고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사과정

네팔 전역을 공포로 몰아 넣은 7.8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지진 후 이어진 강력한 여진으로 지금까지 네팔에서는 모두 8천6백54명이 사망하고, 2만2천명이 다쳤으며, 50만채의 가옥이 무너졌다.

프라카시 다말라(간호04-08) 동문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카트만두에서 멀지 않은 다딩(Dhading)에 사는 프라카시 동문 가족은 이번 지진으로 집을 잃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 큰형 가족, 둘째형 가족, 누나 모두 무사하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다.

2004년 모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프라카시 동문은 현재 모교 의학대학원 예방의학과교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프라카시 동문은 "가서 보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며 "곧 몬순이 시작돼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기 통신 상태도 나빠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연결되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현재 가족들이 천막 등에서 살고 있는데 여진이 계속돼 불안한 상황인가 봐요. 지금도 도로 등이 무너져 봉사자들의 접근이 힘든데 비까지 쏟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프라카시 동문은 현재 주한네팔인협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주한 네팔인들 뿐 아니라 국내 봉사단체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을과 봉사 단체를 연결하는 일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향 마을의 학교를 재건하거나 크게 다친 고향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어요."

네팔에서 형을 따라 여행 가이드 일을 해 오던 프라카시 동문은 네팔로 여행 온 한국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인 이순의 씨를 만나 한국에 오게 됐다. 이순의 씨는 귀국해서 그를 한국에 초청했고 모교 간호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도왔다.

"네팔에서는 간호대학에 남자가 들어갈 수 없고,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간호 일을 하는 양어머니(이순의 씨)를 보면서 색다른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간호사의 전문성이 높아 보기 좋았어요."

간호학 전공 후 그는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서울시 간접흡연 영향 조사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고 모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프라카시 동문은 "박사학위 후 WHO 등의 국제기구서 경험을 쌓은 뒤 고국으로 돌아가 보건의료제도, 질병 감시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안상훈)은 네팔 강진과 관련, 일회성 모금운동을 넘어 대학의 사회책무성 실현 차원에서 활동방향을 네팔 대학 재건으로 설정했다.

지원활동으로는 초기 긴급구호와 중장기 복구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2010년 카트만두 대학과 교환학생 MOU를 체결했으며 현재 13명이 서울대에 재학 중이다.

〈김남주 기자〉

TV 예능판 접수중인 방송인 황석정 동문

요즘 김태희(의류99-05)·이하늬(국악02-06) 동문보다 '핫'한 서울대 출신 스타가 등장했다. TVN 드라마 '미생' 재무부장으로 등장해 최근 MBC '라디오 스타'의 게스트로 나오며 화려한 입담을 자랑한 황석정(국악89-93) 동문이 그 주인공. 얼마 전에는 토크 프로그램인 '세바퀴'에 출연, 스스로 서울대 재학시절 별명이 '너 서울대 아니지'와 '너 처녀 아니지'였다며 너스레를 떨어 동료 출연자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황석정 동문에 대한 방송 칼럼리스트 김교석 씨의 평이다.

"중년 '여배우' 황석정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시청자 앞으로 불쑥 다가왔다. 솔직한 입담과 반전의 생을 살아온 에피소드로 이뤄진 라이프스타일은 성별을 넘어서는 친밀함으로 대중을 끌어당겼고 학벌과 연기 구력으로 상징되는 탄탄한 내실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HUMAN FURNITURE ENEX

春

당신의 주방에 봄을 초대하세요.

보기만해도 특별한 가치가 느껴지는 주방
시간의 흐름에도 퇴색되지 않고 깊이를 더해가는 주방
당당하고 기품있는 아름다움을 에넥스가 담았습니다.

PRIME 9001
그랜드 스퀘어 (Grand Square)

레드 오크 (Red Oak)

앨리스 (Alice)

한국형 UK (Universal Design Kitchen)

휴먼퍼니처 에넥스 대표전화 02-2185-2000 | 대리점 가맹문의: 02-2185-2024 | 홈페이지 www.enex.co.kr | 쇼핑몰 www.enexhome.com

■ 에넥스 직매장 및 쇼룸 / 논현직매장 02-3443-8833 02-547-9236 목동직매장 02-2643-4050 방배쇼룸 02-3481-0999 잠실쇼룸 02-3431-0208 중곡쇼룸 02-447-7148 강북전시 02-927-8516 묵동쇼룸 02-447-4511 분당쇼룸 031-702-2633 흥덕쇼룸 031-216-6948 대전쇼룸 042-522-0760 대구쇼룸 053-751-4089 부산쇼룸 051-638-2180 광주쇼룸 062-269-9011

선한 인재들을 후원해주세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선한 인재 장학금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렇게 쓰입니다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인당 매월 생활비 30만 원 지원

* 가계소득 1분위 : 월 소득인정액 108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이만큼 필요합니다

매년 27억 원(학기당 750명)

360만 원이 모이면 한 명의 학생에게
1년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900억 원이 모이면 기금 운용수익을 통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참여

동봉된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 팩스 ·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ARS 후원

060-700-8004 한 통화에 5,000원이 기부됩니다.

전화 참여

02-880-8004, 02-871-8146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액공제, 법인은 연간 이익금액의 50%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서울대학교발전기금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전화 02-880-8004 팩스 02-872-4149 이메일 snuf@snu.ac.kr 홈페이지 www.snu.or.kr

시대와 세대에 따라 모교 축제도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1960년대는 단과대학별로 독자적인 축제가 활성화 됐다. 당시 크게 유행했던 카니발행사서 포크댄스 등의 춤을 추는 모습(왼쪽). 1970년대는 낭만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의 혼돈의 시기였다.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이 학생들 사이에 점차 유행했다(가운데). 1980년대 대학가는 투쟁과 시위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봄축제를 대동제라 불렀다. 대동은 화합과 단결의 기치를 의미한다.(오른쪽) 사진제공=서울대 기록관

대학 축제에 가면 그 시대 청춘의 고민이 보인다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모교 봄축제'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관악캠퍼스 일대에서 '일해라 절해라'를 주제로 봄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에서는 '갑을 문화', '취업난'에 대한 고민 등이 다양한 놀이 문화 등을 통해 발산됐다. 그동안 서울대 축제는 그 시대 젊은이의 고민을 표출하는 장 역할을 해왔다. 시대별 축제를 살펴봤다.

갑을 문화 풍자·네팔 돕기 행사도

예전부터 모교는 연예인을 초청해 축제의 말미를 장식하는 다른 학교들의 축제와는 달리 학생 중심의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해 자율성에 기반을 둔 대학 축제의 질을 높였다.

금년에는 △컴퓨터게임 대회 〈관악게임리그〉 △봉천노래자랑 〈모창편〉 △힙합공연 Hopping the Hip △댄스 공연 Hit the Stage △도전 정규직 △〈따이빙굴비〉: 밴드 공연 △폐막제 등이 준비돼 공부도 잘하고 춤과 노래 및 악기 연주 등의 잠재된 예술적인 재능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서울대생들을 소개하는 기회의 장이 됐다.

우선 이번 축제에서 눈에 특기할 만한 점은 축제 제목이다. "일해라 절해라"를 단순히 문맥적으로 일하고 절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면 축제 기획 의도를 파악한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이래라 저래라"인데, 의미가 전혀 다른 문장 속에 꽁꽁 숨겨진 올해 서울대 학생들의 진정한 외침이 응축돼 있다.

이번 축제를 총괄 기획한 '서울대학교 축제하는 사람들'의 김나연(인류학 11입) 대표는 "올 초에 사회적 이슈였던 '갑을 문화'를 축제를 통해 유쾌하게 비판하고자 이러한 문구를 창안했다"고 말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하는 사회적 세태에 대한 풍자는 재학생들의 슬픈 단면을 반영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린 행사 하나가 있다. '도전 정규직'은 KBS 1TV 〈도전 골든벨〉을 모방한 퀴즈 행사로, 참가자 1백명의 인턴사원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나연 대표는 이 행사의 목적이 "대학 졸업자의 구직난 문제를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보기 위함에 있다"고 말했다.

200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외국인 음식문화 축제도 봄축제의 묘미이다. 올해는 네팔과 인도를 포함한 총 9개국이 참가했다. 특히 지난 4월에 지진이 발생한 네팔을 돕고자 네팔 부스 옆에 이재민 성금 모금함이 설치돼 음식과 행사를 통해 국제 문제에도 관심을 갖는 모교 축제의 외교적 성격을 보여줬다.

70년대 쌍쌍파티, 80년대 대동제

과거의 모교 축제는 어떠했을까? 1960년대는 단과대학별로 독자적인 축제가 활성화 됐다. 축제는 보통 학술 강연회, 토론회, 발표회, 음악회, 연극 공연, 시화전, 서예전, 체육대회, 카니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당시 카니발은 주로 가장 행렬이나 가면무도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여기서 학생들은 폴카, 탱고, 블루스, 트위스트 등의 춤을 즐겼다.

예술주간 나흘째인 5월 14일 모교 문화관 앞에 설치된 학(교조) 조형물을 배경으로 여성 듀오 돌새피지가 공연을 펼쳤다.

1970년대 전반기부터 판소리나 탈춤 공연이 큰 인기를 얻고, 강연회나 토론회의 주제는 민족 문화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뤘다. 한편으로는 이때부터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이 학생들 사이에 점차 유행했다. 유신 선포 후 패배주의와 무력감에 젖어든 대학가에는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와 함께 장발, 미니스커트, 고고 춤까지 유행했다. 낭만과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의 혼돈의 시기였다.

1970년대 중반에 재학했던 한정숙 모교 서양사학과 교수는 "당시에 학생들은 현 규장각 터에 있던 밤골에서 탈춤이나 민속 공연을 많이 했다. 그리고 쌍쌍 파티라고 남녀 학우가 만나면서 일대일로 만나는 행사도 있었고, 당시에는 들어가기 힘들었던 기숙사 오픈 하우스 행사도 있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쌍쌍 파티와 같은 대학가 축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교내 애인에서 출발해 평생 반려자로 골인하는 교각 역할을 한다.

한편 1980년대는 과거 유신정권과 '서울의 봄'을 지나오면서 학생운동권이 형성돼 순수한 오락 활동에서 풍물굿과 줄다리기와 같은 공동체 놀이문화로 이동했던 시대였다. 이 당시에 봄축제를 '대동제'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다. '대동(大同)'의 의미는 화합과 단결의 기치를 의미한다.

90년대 일명 X세대(물질적으로 풍요로운 90년대에 청소년·청년기를 보낸 세대)의 등장은 70년대와 80년대 세대에 차별을 두는 분기점을 형성했다. 이 시대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연예인 초청공연 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한정숙 교수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 축제에 연예인을 초청하는 행사가 등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청년문화와 대중문화가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 시기로 주점문화, 연예인 초청, 반복된 이벤트, 기업체 홍보경연장이 축제의 코드로 정착해 계승되고 있다.

모교 개교 이래 교내 축제의 역사를 주마등처럼 훑고 지났다. 신문 한 면에 채워진 기사와 사진들을 통해 졸업생은 기억의 밭에서 아련한 옛 추억의 그림자를 반추해보고, 재학생은 선배님들의 대학교 생활을 알아가며 선후배 간의 학연을 결속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김성구 학생기자〉

이번 봄 축제에서 모교 학생들의 '오늘'을 엿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외국인 음식문화 축제는 글로벌화한 2000년대 대학가를 상징한다(왼쪽). '도전 골든벨'을 패러디한 '도전 정규직' 퀴즈대회에 최근 대학 졸업자의 구직난 문제를 녹여냈다(가운데). 이번 봄 축제와 함께 '예술주간행사'도 진행됐다. 학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거리 공연, 설치 및 참여미술, 게릴라극 등 '소통하는 예술'로 캠퍼스 곳곳을 물들였다.(오른쪽). 사진=변정수 기자

“신양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신양문화재단 鄭晳圭명예이사장 별세
모교에 4백51억 기부…나눔 정신 남겨

20여 년 넘게 모교에 나눔을 실천한 신양문화재단 정석규(화학공학48-52) 명예이사장이 지난 5월 21일 향년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87년 1천만원의 첫 기부를 시작으로 모교에 총 4백51억원을 기부한 정 명예이사장은 평생 근검절약하며 모은 돈을 후학 양성과 모교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출연했다. 공대·인문대·사회대에 각각 신양학술정보관을 건립했으며, 본회 특지장학금과 각종 교육·연구 기금 조성을 통해 모교 학생 8백20명에게 25억6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근래에는 몇 년 동안 후두암과 위암으로 투병하며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학술정보관 건립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며 평생의 사업인 장학 사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돈은 분뇨 같아 한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고루 뿌리면 풍성하게 수확한다”는 것이 정 명예이사장의 신조였다.

학술정보관을 짓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2005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999년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하버드대에만 약 1백개의 도서관이 있고 상당수가 동문 기부금으로 건립됐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며 “사회가 대학에 관심을 갖고 재투자해야 대학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모교 재학생들은 지난 2010년 '신양 할아버지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해 정석규 명예이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명예이사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며 학내에서는 평소 존경과 애정을 담아 부르던 ‘신양 할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모교 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는 물론 5월 22일과 23일 학내 세 곳의 신양학술정보관에 마련된 분향소에 많은 모교 교수와 재학생, 졸업생들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다.

김도연 前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정 명예이사장에 대해 “중국집엘 가도 짜장면과 우동만 먹으면서 남는 음식은 플라스틱 통에 싸가셨다. 그렇게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신 분”이라고 회상했다.

2010년 재학생 3백여 명과 함께 ‘신양 할아버지를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 문주용(화학생물공학04-08) 동문도 고인의 낡은 양복과 구두 등 거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검소했던 모습과 무한한 후학 사랑을 떠올렸다. 당시 이벤트에서 재학생들은 ‘신양 할아버지의 나눔의 뜻을 함께 하자’며 자발적으로 1천만원을 모아 기부를 실천하기도 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무역상 선원으로서 일본에서 터득한 기술로 1967년 태성고무화학을 설립하고 산업용 고무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1998년 신양문화재단을 설립, 모교 재학생, 중·고등학생, 고무학회 등을 포함한 각종 학술단체 육성 및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박수진 기자〉

학생기자의 소리 방 준 휘(전기정보12입)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요?”

저는 사회학을 복수전공하는 공대생입니다. 공학도에게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공학이 열어갈 미래 사회를 구상하는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겐 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람들은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까?’라는 물음입니다.

직업 선택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직업 선택은 사회 조직과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은 물론 개인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문제까지 함께 살필 수 있기 때문이죠. 선택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선택에 대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직업에 관해서는, 수많은 기준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둘러싼 사회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국 사회는 소위 말하는 ‘士’자 돌림 직업군에 대한 맹목적 선호에 반성의 노력이 보입니다. 조화로운 사회에서 한 직업군에 대한 쏠림현상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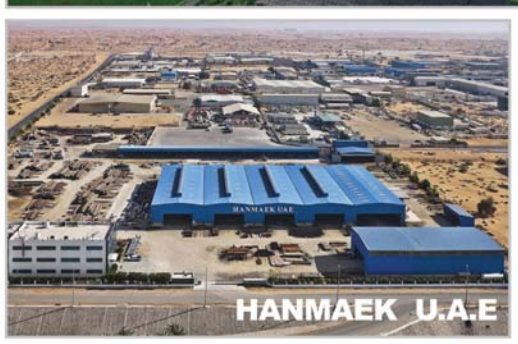
그 반동으로 이 사회는 소리 높여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즐거운 일을 하세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고민이 하나 늘었다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며 말이죠.

사회의 요청에 따른 이러한 고민은 선택의 기회비용 문제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에 사회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라는 구절로 사회를 향한 요청 일반을 침묵시켜버립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어떠한 조작도, 선전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신에 부합하는 직업을 갖는 것은 자아 완성에 필수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들에 전제로 그려지고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도리어 자신에 대한 성급한 판단, 왜곡된 판단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말하는 자유가 진정한 것인지를. 진정한 기회를 주었는지 말이죠.

연간 20만톤 생산규모로

세계 철구조물 시장을 주도하는 – 한맥!



Steel Structure
- Oil & Gas Plant
- Power Plant
- Big Span (PEB & S/P)
- Building Structure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 LTD.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B/D 10층
  TEL : (02)582-0114(代), FAX : (02)582-0116
- 공장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46 (한맥공단)
  TEL : (031)356-0011(代), FAX : (031)356-4734
http://www.hanmaek.co.kr

"좋아하는 길 찾기보다 선택한 길 좋아해야"

경력개발센터 주관 '스누포럼'
인터파크 李奇衡대표 기조연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지난 5월 22일 모교 관악캠퍼스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스누포럼 동문선배들과 함께 하는 진로멘토링 파티'의 문을 열며 인터파크 이기형(천문82-87) 대표가 강조한 말이다.

스누포럼은 경력개발센터에서 주도해 만든 것으로 자신의 이력을 바탕으로 모교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1백여 명 동문의 모임이다. 모임의 취지에 맞게 올해로 4회째 진로멘토링 파티를 개최함으로써 선후배가 진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스누포럼은 이번 행사에 지난 진로멘토링 파티들과 달리 멘토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했다. 참여한 후배들이 한 명의 멘토에게서만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멘토 코디네이터의 인맥을 통해 다른 멘토를 소개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멘토 코디네이터는 총 21명으로, 법조, 기업·CEO, 교육·연구, 금융, 방송·문화·예술, 보건·의료 계열을 대표해 각 계열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과 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러한 멘토링 시간에 앞서 스누포럼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기형 동문이 자신의 대학시절 추억 이야기로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던 시절, 밤새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등교하던 길에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났던 기억이다.

스누포럼 이기형 회장의 기조연설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 동문은 "이처럼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기에 그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살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며 "그런 지혜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 동문은 주변을 관찰한 끝에 알아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꼽으며 연설을 이어갔다. 첫째는 독종이라고 할 정도로 포기를 모른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서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알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협력을 끌어낸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동문은 이를 "변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이 이기형 동문이 생각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동문은 이 특징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슈임을 강조했다. 성공하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길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을 보여주는 자리라기보다는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자리"라며 진로멘토링 파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좋아하는 것이라며 "좋아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좋아하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포기하지 않고 전체를 보며,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인간관계에도 신경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조연설을 한 이기형 동문은 1996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다. 데이콤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파크를 설립한 것이다. 이듬해 데이콤에서 독립한 인터파크는 여행, 물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현재의 인터파크그룹으로 발돋움했다.

현재 이 동문은 인터파크 회장직과 자회사인 인터파크INT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다.

〈김예원 학생기자〉

정치·외교학부 통합 후 첫 '화합의 페스티벌'

金鎭久동문 기금출연 GLP프로그램 발족

제1회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축제(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estival, PIF)가 지난 5월 13일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됐다.

정치외교학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957년 정치학과와 외교학과가 분리됐다가 2010년에 정치외교학부로 통합한 이래 학부 차원 첫 화합의 장이었다.

1부에서는 정치학·외교학전공 자치회가 준비한 퀴즈대회와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정치외교학부 화합의 시간, 2부에서는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Global Leaders Program, GLP) 발족식과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김진구(외교85-89) 산성엘앤에스 대표, 전상훈(정치85-97) 이지스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황영철(정치85-91) 국회의원, 장형원(외교85-97) MBC 교양국 PD, 이경아(외교91-95)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등을 비롯해 올해로 입학 30주년을 맞은 85학번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진구 동문의 기금 출연으로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의 발족식이 거행됐다.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은 기존의 정치학, 외교학 전공 프로그램을 하나로 엮어 정치외교학부 전 학년에 걸쳐 배움과 실천을 심화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부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고 공공부문에서 차세대 '지도자(leaders)'로 봉사할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발족식에서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 기금을 출연한 김진구 동문이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구 동문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인재들을 키우는 정치외교학부를 나왔지만, 정작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항상 아쉬웠다"고 말했다. 서른 살에 처음으로 방문한 로마, 파리, 비엔나에서 제국의 흔적들에 압도당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이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느꼈다는 그는 "그것들을 20대 초반에 볼 수 있었더라면 나는 아마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하는 고민이 프로그램 발족의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신사유람단의 일원이 돼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은 1학년, 2학년, 3~4학년 등 맞춤형으로 기획됐다. 1학년에게는 신입생 환영 페스티벌 및 선배들과의 토크콘서트를 제공하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축제와 2~4회 정도의 강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2학년에게는 학부 교과목과 연계해 문명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4학년 학생들에게는 자율연구와 교수들의 밀착지도를 결합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학생에게는 현지연구, 언어교육 등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수료한 학생들의 세미나 결과물 또는 졸업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상을 수여하고 아너스(Honors) 학생을 선정해 우수논문을 출판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스 프로그램 발족을 계기로 정치외교학부의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된다. 사이트 주소는 globalleaders.snu.ac.kr이다.

〈이지은 학생기자〉

모교단신

학생 식당 1천원 아침식사 제공

모교는 지난 6월 1일부터 학생회관 식당에서 재학생들에게 1천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모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현실을 개선하고, 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오전 8시에서 9시 30분까지 기존 1천7백원이었던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하고 있다.

미술대학장에 李容德교수 임명

지난 5월 7일 모교 미술대학 학장에 조소과 이용덕(조소77-82)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이 학장은 모교 조소과 졸업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베를린예술종합대학에서 조소 전공으로 마이스터쉴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부터 모교에 부임했다.

음각과 양각이 뒤바뀐 '역상 조각'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과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했다.

벤처경영기업가센터 멘토단 구성

모교 벤처경영기업가센터(센터장 남익현 교수)는 2015년 5월 29일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벤처경영기업가센터 자문단 및 멘토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박태형(자원공학76-80) 인포뱅크 대표, 손주은(서양사학81-87) 메가스터디 회장, 김병관(경영91-96) 웹젠 이사회 의장, 김종흔(경영92-96) 데브시스터즈 대표, 정우진(사회94-04) NHN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동문 창업가 40여 명과 벤처경영연합전공 학생 및 창업동아리 SNU-SV 학생 60여 명이 참석했다.

멘토단은 창업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문들이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 준비 및 기업가 소양의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술관 又誠 金鍾瑛 회고전

추상조각의 선구자 우성 김종영 작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모교에서 회고전이 한창이다. 모교 미술관은 5월 7일부터 오는 7월 26일까지 '김종영의 조각, 무한 가능성' 전을 개최한다.

김종영 작가는 동양의 무위자연적 인식을 접목시켜 독자적인 조각의 세계를 구축했다.

'불각(佛刻)의 미'로 표방되는 예술관을 통해 작품의 형체보다 내적인 태도를 중시하며 가급적 인위성을 배제하고 나무와 돌 등 재료의 자연적인 물성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53년 제2회 국전에 출품해 한국 조각사에 추상조각의 효시가 된 작품 '새'를 선보인다. 빨래 방망이를 손질해 만든 작품으로 당시 '관람객 모독'이라는 비난을 받은 문제작이다. 식물, 산 등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추상조각과 드로잉, 서예작품 등도 감상할 수 있다.

결혼! 참 잘했다

대명위드원
결혼정보 & 웨딩컨설팅

대명그룹	30여년 고객서비스 역량 구축 대한민국 레저 No.1 대명리조트의 회원관리 역량 기반 국내 유일 대기업 브랜드/서비스 품질보증
결혼정보	20여년 매칭시스템 운용 대한민국 대표 성혼의 달인/중매 특허 보유 2:1 맞춤형 밀착서비스
웨딩컨설팅	10여년 웨딩컨설팅 설계 셀프웨딩부터 동행서비스까지 맞춤형 상품 대기업 계열사/제휴 인프라 연계 상품

대한민국 대표리조트기업 대명그룹 계열사

대명위드원
결혼정보 & 웨딩컨설팅

결 혼 정 보 1588-3883
웨딩컨설팅 02)2017-7500

대명레저산업(2014 현재 대명리조트 국내 리조트 1위, 오션월드 세계 워터파크 4위) 대명홀딩스 | 대명건설 | 대명엔터프라이즈 | 대명코퍼레이션 | 대명라이프웨이 | 대명복지재단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서울-서초-국내-08-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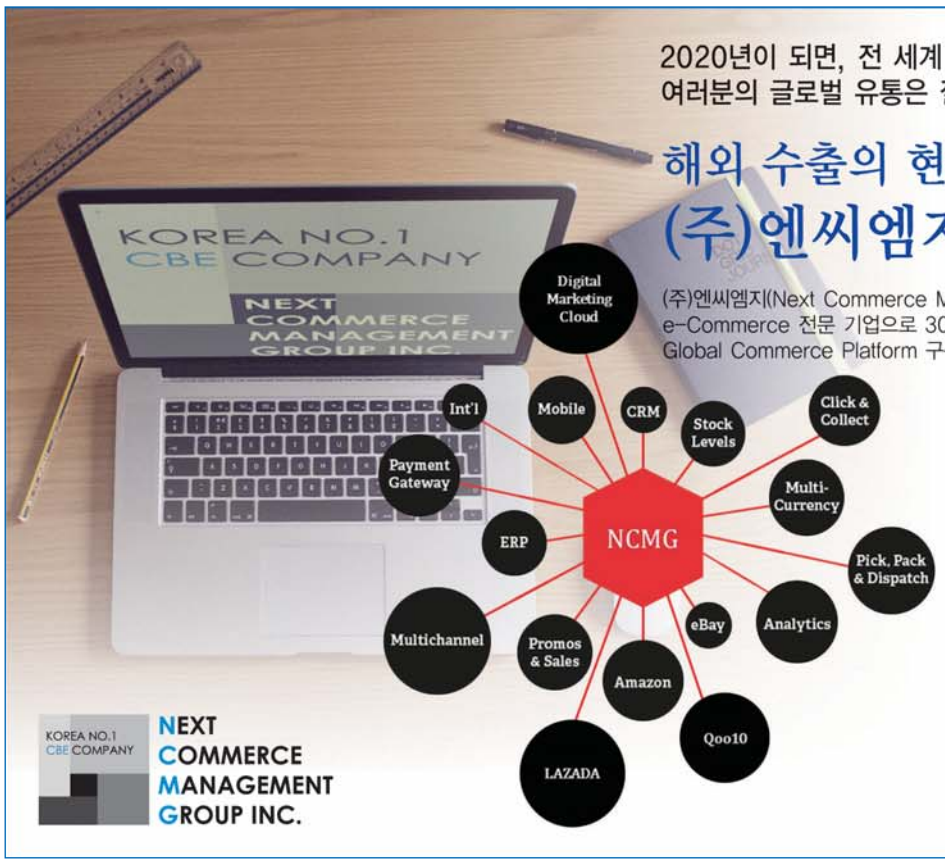
건방진 健幫珍

세상에 이런 김이 고수김 芫荽

청정해역에서 건져올린 햇김과 작익어 매콤하고 향기가 좋은 고수를 첨가하여 바삭하게 구워
그 향기와 맛이 일품인 고수김입니다.

맛을 디자인하는 회사 (주)해도원 대표이사 김 병 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문로 228 T.032.933.8852 F.032.933.8853 E.hdw8852@daum.net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유통의 50% 이상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로벌 유통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외 수출의 현재와 미래 Korea No.1 CBE Company,
(주)엔씨엠지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주)엔씨엠지(Next Commerce Management Group Inc.)는 이베이 등 글로벌 커머스 기업출신들이 만든 한국 최초의 Cross Border e-Commerce 전문 기업으로 30개 이상의 주요 한국 브랜드 제조사 및 온라인 쇼핑몰 기업의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Global Commerce Platform 구축부터 단일 상품의 해외 수출까지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모든 해법을 ㈜엔씨엠지가 제공해 드립니다.

- THE NEWEST GLOBAL E-COMMERCE SOLUTION
- GLOBAL DIGITAL MARKETING
- SCM PROCESS TOTAL OPERATION FOR CBE
- CROSS BORDER E-COMMERCE TOTAL CONSULTING

해외 수출이 필요하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kate@ncmg.co.kr
070-4714-5311
NCMG Inc.
www.ncmg.co.kr

Cross Border e-Commerce란?
직구,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경간의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KOREA NO.1 CBE COMPANY
NEXT COMMERCE MANAGEMENT GROUP INC.

릴레이 에세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黃 成 赫(조선항공58-65)
황화상사 대표·수필가

마지막 입사지원자의 면접시험이 끝났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많은 수험생으로부터 비슷한 답변들을 들어야 했던 시험관들은 지루했던 하루로부터 해방된 느낌으로 책상을 정리하며 일어서고 있었다.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수험생이 머뭇거리며 시험관들을 붙든 것이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귀사의 장래를 위해서 한 말씀드릴 것이 있거든요. 괜찮겠습니까?"

'물론 안 되지' 하는 몸짓으로 인사부장은 그녀의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닫았다. 시험관들도 주섬주섬 일어섰다. 그때 하루 종일 뒷전에서 졸듯이 앉아있던 사장이 손을 들었다. '들어보자'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일어서던 시험관들은 주저앉았고 수험생은 엉거주춤하게 일어섰다. 그는 손바닥만한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면접 받기 전 오후 내내 대기실에서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수험생들을 뜯어보면서 나의 여성 경쟁자들과 나 자신 그리고 귀사의 장래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앞에 앉은 시험관들의 눈치를 살피며 계속했다.

"특히 여성 지원자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얼굴도 제대로 가꿀 줄 알고 시험도 요령있게 칠 줄 알고 면접관의 구두시험에도 영악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성 지원자보다 쉽게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남성 지원자들을 밀어내고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패배의식을 느꼈다는 말이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차츰 그녀들이 측은해진 겁니다. 물론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들이, 아니 우리 사회의 모든 젊은이들이 측은해진 겁니다. 세상이 여성으로 넘쳐납니다. 학교는 여자 선생님들로 가득하고 법원은 여자 법관들로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군대까지 사관학교까지 여성의 입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성들은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장은 점점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창조해 놓았습니다. 남성은 밖에 나가 일을 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자녀를 출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과 낮은 출산율입니다.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고 남성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이 두 개의 기본적인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장이 또 끼어들었다.

"그런데 남자 혼자 벌어서 살기가 힘든 세상이잖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대답이 흘러 나왔다.

"그것은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남성들과의 경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저임금을 유도한 것입니다. 남성들을 필요한 자리에 앉히고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올려 주면 됩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따뜻한 가정을 꾸리면 우리의 삶은 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하기보다 정신적인 만족에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주는 정신적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의 만족도는 약간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눈높이의 문제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어도 삶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무리 벌어도 결코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불만으로 터질 듯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들의 세대, 일만 알던 세대에 환멸을 느껴왔지만, 요즈음 그것이 인간이 사는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사부장은 '네가 여자의 삶을 알기나 해?' 하듯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여성의 삶이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고 세상살이가 말로 하듯 만만한 것인 줄 아세요."

그는 이제 완전히 평정을 되찾고 편안한 자세로 그의 소신을 펴나갔다.

"저는 세상살이의 초년병입니다. 그러나 이십육년간 살아오는 동안 저는 제 부모님들의 삶과 학교생활, 군대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상에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같은 일이라도 남성보다 더 잘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사회참여와 가정생활의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가정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남성이,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여성이 맡는 것이 자연의 법칙에 부응하는 순리입니다. 어느 고승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설법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법문의 불교적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여성은 여성의 자리를, 남성은 남성의 자리를 지켜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각기 주어진 자리를 잃고 뒤섞이는 순간 세상에는 혼란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만족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사장은 웃고 있었다. 그는 사장의 미소가 그를 격려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 가지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남의 손에 내버려둡니다. 모두 직장 탓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얼마나 버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알량한 수입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도 싫은 어린이집의 폭력사건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들의 양육에서 벗어나려는 어머니들이 많은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를 들든 타이르든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다느냐 마느냐로 아우성치기 전, 믿지 못할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삿대질을 시작하기 전 그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은 외손들의 양육을 위해 그들의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몇 푼의 월급을 타온다는 핑계 아래 여성들이 가진 가장 고귀한 의무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사랑할 권리, 사랑받을 권리, 그래서 세상을 사랑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책임을 여성들 스스로 박차 버린 결과입니다."

그는 사장에게 건의하는 여유를 보였다.

"이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은 각 사의 고용방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을 뽑고 다른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 자리로 돌려 보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사부장이 더 참지 못하고 꽥 소리를 질렀다.

"사장님 하루 종일 면접에 시달린 우리가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자고 아직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사장이 끼어들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의 말이기는 하지만 듣는 맛이 괜찮구만. 이제 자네 소신은 그만 듣기로 하고, 자네는 그래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그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이 회사 입사를 위한 면접에 참여했다가 약간 흥분해서 떠벌리긴 했지만 그래 지금 이 회사에 입사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가 머뭇거리는 동안 사장이 한마디 덧붙였다.

"그래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있으면 언제쯤부터 출근할 수 있는가?"

사장의 의외의 격려에 그는 다시 한번 일탈하고 말았다.

"사장님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입사 지원서를 낸 회사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면접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논쟁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처럼 이런 논쟁을 허용할 회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봐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은 씩 웃었다.

"그래 하고 싶은 일을 다 마친 뒤 생각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그때 꼭 채용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 "
> **저는 입사 지원서를 낸 회사가 몇 군데**
> **더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면접을 보겠습니다.**
> **그리고 오늘 같은 논쟁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 **소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09-13) 동문

• 黃동문은 김만옥 소설가, 이제하 시인 등 1950년대 경남 마산 출신 문인들로 구성된 백치(白痴) 동인에 소속해 활동해왔다. 저서로 '넘지 못할 벽은 없다'와 영역본 'Let There Be A Yard'가 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빚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주)한국이앤엑스

회장 김 충 한(ACAD. 국가정책 18기 / AMP. 최고경영자과정 19기)

공중화장실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수방류수를 이용한 세계 최초 · 최고 높이의 인공폭포와 피아노 화장실(남양주)

www.toilet.or.kr

한국화장실협회(KTA)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 화장실 이용문화 선진화
- 공중화장실 정책 및 제도 개선
- 화장실 관련 산업 발전
- 취약계층 화장실 지어주기 운동
- 화장실문화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장 김 종 해

KTA 특수법인 한국화장실협회 Korea Toilet Association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인계동) 기업은행 4층
T 031.226.7001 F 031.226.7045

동 정

수 상

▲朴甲洙(국어교육54-58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지난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세종문화상(학술 부문) 수상.

▲丁海昌(법학56-60 좋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본회 부회장)=지난 5월 12일 천고법치문화재단으로부터 제1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禹仁性(기계공학58-62 인터비즈시스템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5월 7일 서울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창조경영 부문) 수상.

▲潘基文(외교63-70 유엔 사무총장)=지난 5월 24일 아일랜드 티퍼레리의 발리키스틴호텔에서 '티퍼레리 국제평화상' 수상.

▲張台鉉(화학71-75 포스텍 교수)=지난 5월 28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일본 고분자학회 학술발표회에서 'SPSJ 인터내셔널 어워드' 수상.

▲金思寅(국문74-80 동덕여대 교수·시인)=지난 5월 28일 시집 '어린 당나귀 곁에서'로 제15회 지훈문학상 수상.

▲金興南(전자공학75-80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지난 5월 19일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安丞權(전자공학76-80 LG전자 사장)=지난 5월 19일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李康沃(국문76-80 영남대 교수)=지난 5월 28일 저서 '일화의 형성 원리와 서술 미학'으로 제15회 지훈국학상 수상.

▲李美玉(약학81-85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5월 13일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마크로젠 여성과학자상 수상.

▲金昶洙(응용미술82-86 가천대 교수)=지난 5월 9~11일 가천대에서 열린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대회에서 트렌드작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李相燁(화학공학82-86 KAIST 교수)=지난 5월 19일 제50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 수훈.

▲鄭点植(공법84-88 대검찰청 공안부장·법무부 위헌정당 TF팀장)=지난 5월 12일 천고법치문화재단으로부터 제1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

▲權善珠(SPARC 22기 기업은행장)=지난 5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 수훈.

인 사

▲李大淳(법학53-57 경남대 한마학원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5월 28일 임기 4년의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제8대 회장에 재선출.

▲崔鴻圭(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교대원동창회장)=최근 사단법인 한국시인연대 제13대 회장에 선출.

▲鄭大秀(신대원67-70 前경남대 교수·前국제신문 정치부장)=지난 5월 7일 독립애국지사 최재형장학회 홍보대사에 위촉.

▲左承喜(경제67-71 영남대 석좌교수)=지난 5월 27일 인터넷 정론지 미디어펜 공동대표이사 회장에 선임.

▲李惠柱(응용미술69-73 중앙대 교수)=최근 사단법인 지속가능과학회(SOSS) 회장에 선임.

▲趙煥益(정치69-73 한국전력공사 사장)=지난 5월 22일 한국능률협회로부터 제47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許壽永(화학공학70-74 롯데케미칼 대표)=지난 5월 28일 한국석유화학협회 제18대 회장에 취임.

▲金光林(불문71-7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5월 27일 임기 3년의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에 임명.

▲朴良浩(지리71-75 前국토연구원장)=오는 6월 16일 개원하는 재단법인 경남창원시정연구원 초대 원장에 선임.

▲申鉉澤(역사교육71-75 前예술의 전당 사장·서울사이버대 석좌교수)=지난 5월 26일 서초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

▲宋喆儀(국문72-76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5월 26일 임기 3년의 국립국어원 제10대 원장에 임명.

▲金學銖(대학원77졸 서강대 교수)=지난 5월 23일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연차대회에서 석학회원에 선정.

▲金昌俊(법학74-78 법무법인 세경 변호사)=지난 5월 22일 한국보험법학회 제5대 회장에 선임.

▲申正秀(기상74-82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 이사장)=최근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인 풍석 서유구 선생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한 풍석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

▲朴商玉(법학75-79 변호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지난 5월 8일 대법원 대법관에 취임.

▲朴魯壁(외교76-80 前주우크라이나 대사·외교부 원자력협력대사)=지난 5월 14일 주러시아 대사에 임명.

▲玉東錫(경제76-80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지난 5월 12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

▲李炳模(조선공학76-80 대한조선 대표)=지난 5월 27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具本敏(법학77-81 前수원지검 안산지청장)=지난 5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13대 이사장에 취임.

제2회 전국 대학생 IEL & E4E Quiz Contest Awards

OUTSTANDING + EXCELLENCE

- IEEE상 :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준우, 장학금 200만원과 상패
- KITIS상 :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이정섭, 장학금 100만원과 상패
- 우 수 상 : 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임우정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강현일
  한국항공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준규
  한국해양대학교 전자소재공학과 이규현,각 장학금 50만원과 상패

이 외 건국대, 고려대, 남서울대,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숙명여대, 한국외대에서 10명의 참가상 수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IHS IEEE SAE INTERNATIONAL
Authorized Dealer in Korea

KITIS 키티스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代)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崔東圭(법학83졸 前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주케냐 대사)=지난 5월 6일 특허청장에 임명.

▲兪京濬(경제81-85 前한국개발연구원 교수·한국기술교육대 교수)=지난 5월 26일 통계청장에 임명.

▲朴市浩(AMP 60기 행복경영연구소 이사장)=지난 5월 15일 제20대 서울시 정신건강지킴이에 위촉.

▲정기옥(AMPFRI 14기 엘에스씨푸드 대표)=지난 5월 28일 서울시 중소기업인 명예부시장에 위촉.

▲李丙和(ACPMP 7기 두산건설 건축본부장 겸 부사장)=지난 5월 18일 두산건설 사장에 선임.

행 사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5월 2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숭실사이버대 鄭仗晟 부총장을 초청, '행복한 삶, 나눔의 가치'를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李富燮(화학공학56-6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지난 5월 27일 서울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울트라 프로그램 라운드 테이블' 개최.

▲金仁浩(행정60-66 한국무역협회장)=지난 5월 8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전국무역상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金慶漢(법학62-66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지난 5월 26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기업 비리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지난 5월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경기청소년적십자단원 합동입단 선서식 및 안전한 우리 학교 만들기 캠페인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5월 29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에서의 상업활동과 사회주의상업법의 최근 정비동향'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朴聖炫(화학공학64-6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지난 5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발효식품과 건강' 심포지엄 개최.

▲羅成淑(응용미술71-75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오는 6월 16~24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옻칠전 개최.

▲車仁濬(의학71-77 인제대 총장)=지난 5월 26일 김해캠퍼스장영실관에서 인제대 개교 36주년 기념식 개최.

▲任洪宰(영문71-78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지난 5월 19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서울호텔에서 '2015년 이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한국 기업의 참여와 기여'를 주제로 한국 기업지도자 회의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지난 5월 18일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4학년 재학생 5명에게 청소년지도장학금 수여.

▲河昌佑(법학74-78 대한변호사협회장)=지난 5월 12일 북한 주민 인권 문제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문제를 담당할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발족.

▲朴孝鍾(대학원79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지난 5월 12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 관련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白淳根(교육80-84 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5월 26일 서울 나인트리컨벤션 테라스홀에서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 개최.

▲朴德實(회화81-85 화가)=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평창동 아트스페이스 퀄리아에서 초대전 개최.

▲李康熙(기악87-91 백석예술대 교수)=오는 6월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장르별 시리즈Ⅴ '전주곡'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金永燮(원자핵공학87-95 前청와대 행정관·경상대 겸임교수)=지난 5월 28일 경남과학기술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진주발전연구원 창립기념식 개최.

▲具美貞(기악89-94 피아니스트)=지난 6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張哲浩(AIP 22기 한국전기공사협회장)=지난 5월 28일 전남 자주 한전 본사 등지에서 제26회 전국 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 개최.

▲金泰完(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지난 5월 27일 부산 코모도관광호텔에서 칼럼집 '깨어 있어야 바로 본다' 출판기념법회 개최.

▲安鎬元(HPM 6기 한국보건의료정책연구원 상임부원장)=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사랑의 큰 잔치 개최. 또 수도권 7개 개척교회 목사에게 쌀과 필수품 전달.

삼가 명복을 빕니다

▲沈泰植(법학47-51 前경희대 총장)=5월 7일 별세(92세)
▲鄭晳圭(화학공학48-52 前신양문화재단 이사장)=5월 21일 별세(86세)
▲姜聲渭(철학52-56 한국외대 명예교수)=5월 15일 별세(83세)
▲林一雄(화학공학59-63 前숭실대 공대 학장)=5월 18일 별세(74세)
▲高光勇(정치60-64 前연합통신 부국장)=5월 28일 별세(73세)
▲崔鍾敏(국악62-66 동국대 교수)=5월 14일 별세(73세)
▲嚴勷燮(법학66-70 前주네덜란드 대사)=5월 14일 별세(69세)
▲이동훈(AMP 35기 영도건설산업 회장)=5월 2일 별세(87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무료)
1577-2050
www.nnoble.co.kr

HDC 현대산업개발

KOH YOUNG TECHNOLOGY
INTELLIGENT INSPECTION
SEMICON
3D AOI
3D SPI
• SMT 생산공정용 3D 검사장비 토털 솔루션 보유
• 반도체 후공정 검사장비 시장에 최초로 3D 기술 도입
• 파괴적 혁신을 통한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가치 창출
• 의료용 로봇기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화중
초일류 Quality Assurance 솔루션을 통한 전자 · 반도체 생산공정 혁명,
초일류 Robotics 솔루션을 통한 Medical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본사)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4,15층)
Tel. 02-6343-6000 Fax. 02-6343-6001
WWW.KOHYOUNG.COM
Korea · America · China · Germany · Japan · Singapore

www.gmb.co.kr
코스피상장 Code 013870
GMB
GREEN ENERGY 시대를 선도하는
지엠비코리아!
GMB KOREA 세계 최고 자동차 기술을 개발하다.
지엠비코리아는 최근 세계시장에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중 하나이다.
세계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4,535억원 매출을 올렸고 이 중 해외수출은 25%이상을 차지한다. 주요고객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 Volkswagen, Rennault, Nissan, Honda, Chrysler, GKN. 그리고 Jatco뿐 아니라 다수의 세계자동차 부품 업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다.
지엠비코리아는 글로벌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고자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등 기존의 해외공장과 판매법인에 더하여, 최근 러시아, 루마니아등 현지화 공장을 설립하여,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생산품중 하나인 전동식 워터펌프(Electronic Water Pump)는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회사가 추구하는 Green Energy 시대의 선도는 물론,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세계시장에서 최고 자동차 부품회사가 되는 목표를 이루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동식 워터펌프
20W EWP 16LPM @ 0.1BAR
20W EWP 15LPM @ 0.07BAR
50W EWP 25LPM @ 0.35BAR
주요 생산부품
TENSIONER BEARING ASS'Y
FAN CLUTCH
SPOOL-VALVE
MECHANICAL WATER PUMP
TRIPOD JOINT
대표이사 사장 변종문
(공업교육과 76년 졸업)
GMB
Your success is our Future.

신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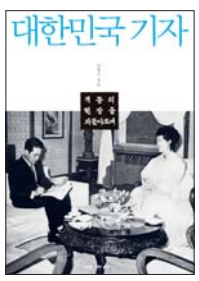
■큰 스승 金鍾瑛 刻伯
－姜泰成 외 32인 지음

한국 근대 추상조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又誠 金鍾瑛(1915－1982)선생을 그린 회상록.

1954년부터 1976년 사이에 모교 미대를 졸업 또는 수료한 서른세 명의 제자들이 金鍾瑛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회고담을 모은 이 책은 스승 金鍾瑛과 나눴던 대화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통해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의 그의 삶의 단면을 밀도 있게 재현해냈다.

金鍾瑛선생은 뛰어난 조각가였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교육자이기도 했다. 국립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이 설립된 직후인 1948년부터 교수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에서 조각을 가르치며 姜泰成, 崔義淳, 崔鍾泰, 崔秉常, 嚴泰丁, 沈貞秀 등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험난한 시대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며 만인의 모범이 됐던 그는 자신에게는 가혹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해 일생 동안 매진했다. 〈열화당刊·값17,000원〉

■대한민국 기자
－金榮洙 지음



격동기 대한민국, 한 나라의 역사가 뒤흔들리는 사건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날들 속에서 그 톱뉴스를 가장 먼저 다뤘던 기자 金榮洙(정치53－64)동문이 이 책을 통해 그가 조·중·동 3대 일간지를 거쳐 MBC 보도국장으로 있으면서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리얼 현대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4·19혁명 당시 전국 지방지의 모든 기사를 도맡게 된 사연부터 金鍾泌 2차 외유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연, 10·26 사건 당시의 분위기와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그리고 李承晩부터 朴正熙대통령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활약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있는 입담이 묻어난다.

이 책은 대한민국 1세대 기자 金榮洙동문이 후배들에게 남기는 기록이자 현직기자들에게 기자란 무엇인지 기자 정신을 깨닫게 해준다. 〈세계사刊·값18,000원〉

■PARK HYANG SOOK Batic Painting
－朴香淑 지음

서울여대 朴香淑(응용미술58－62)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작품 60여 점을 모아 화집을 펴냈다.

작품 뒤에는 수십 수백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넘어 선 구도적 탐구의 결과물인 '적업노트'를 부록으로 붙여서 학과통폐합으로 배움의 길을 잃어버린 후학들에게 길라잡이로서의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디자인 사강刊·값50,000원〉

■어머니 그리고 나의 이야기
－權武一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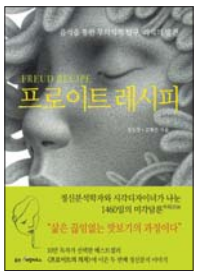
소설가 權武一(철학64－68)동문의 수상록.

10여 년 전, 저자는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연고도 없는 제주도로 떠나왔고, 그 후 7년간은 혼자 보냈다. 외로움과 그리움이 쌓이는 그 시간 동안 저자의 마음은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5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하염없이 어머니의 뜻과 사랑을 되새겼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푹 빠져서 너무 사랑하게 된 제주도의 때 묻지 않은 자연에 대해 누구라도 제주도에 가고 싶어하게 만들 정도로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세상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의 창문을 열어놓고 더 배우고 더 알며 아직 밟지 않은 땅, 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하고 있다. 〈평민사刊·값13,000원〉

■프로이트 레시피
－鄭道彦 외 지음

삶을 무의식의 흐름으로 읽어내는 정신분석가 鄭道彦(의학70－76 모교 정신과학교실 교수)동문과 세상을 모양과 색이라는 의식의 현상으로 표현하는 그래픽디자이너(고재선 씨)가



뜻을 합쳐 다섯 가지 맛－ 단 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을 중심축으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각 장에서 의식의 세계에 초점을 맞춘 디자이너의 글들은 사진 맛보기 앞에, 무의식의 세계에 무게를 둔 정 동문의 글들은 뒤에 배치했다. 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 남녀 간의 소통, 그리고 내면과 외향의 소통을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의 매개체는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시에 가장 오래된 취향인 '음식'이다. 각각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부여해 의식과 무의식의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가령, 단맛은 기억과 추억을, 쓴맛은 성장과 성숙을, 짠맛은 멘티와 멘토를, 신맛은 편식과 편견을, 매운맛은 저항과 인내를 의미한다.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게 된다. 〈웅진리빙하우스刊·값15,300원〉

■아이를 외국 학교에 보내기로 했다면
－金在源·김지인 지음

모교 의대 정신과학교실 金在源(의학91－97) 교수가 중학생 딸 지인 양과 2년 동안 미국에 살며, 하나하나 겪고 함께 쓴 아이 적응 지침서.

해외로 유학, 연수, 이민을 가는 부모의 고민은 크게 두 가지다.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실제로 친구 하나 없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아이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 책은 낯선 외국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아이의 행동과 심리를 읽고 적응 전반을 돕는 책이다. 부모는 아이의 '공부 적응'과 '심리 적응' 모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아이의 적응은 두 배, 세 배 더 힘들어진다. 출국 전, 외국학교생활, 의사소통 문제, 귀국 후 재적응까지 아빠와 딸은 2년의 체험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더 나아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부모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준다. 〈웅진서가刊·값13,000원〉

공 연

■이니스앙상블 연주회
－6월 21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이태정(기악93－97) 동문 (사진上)·채경애(기악95－99) 동문 (사진中), 피아니스트 이윤희(기악97－01) 동문(사진下) 등으로 구성된 이니스(ignis) 앙상블이 6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정기연주회를 연다.

핀란드 국민음악가인 시벨리우스의 탄생 150주년 기념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연에서 현악4중주, 피아노5중주를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金俊希 피아노 독주회
－6월 26일 세종체임버홀

피아니스트 金俊希(기악96－00) 동문 (사진)이 6월 26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나의 사랑하는 베토벤'을 주제로 베토벤 폴로네이즈, 안단테 파보리, 월광 소나타, 발트슈타인 소나타 등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지클레프 515－5123〉

■서지수 피아노 독주회
－6월 26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서지수(기악00－04) 동문 (사진)이 6월 26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All that FANTASY'를 주제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현재 예원학교, 계원예고에 출강 중인 서 동문은 이날 베토벤, 쇼팽, 스크리아빈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이든예술기획 6412－3053〉

■金政希 비올라 독주회
－7월 1일 예술의 전당

비올리스트 金政希(기악04－08) 동문 (사진)이 7월 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金동문은 이날 보웬, 힌데미트, 블로흐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정영선 피아노 독주회
－7월 3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정영선(기악00－04) 동문 (사진)이 7월 3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현재 서울예고, 상명대, 서경대 등에 출강 중인 정 동문은 이날 모차르트, 베토벤, 라벨, 소팽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 이든예술기획 6412－3053〉

■임남희 피아노 연주회
－7월 4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임남희(기악95－99) 동문 (사진)이 7월 4일과 12월 1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연다.

미국 이스트만음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임 동문은 한국피아노학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 한국리스트협회, 미루스 트리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李玉揆 피아노 독주회
－7월 6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李玉揆(기악98－02) 동문 (사진)이 7월 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현재 모교에서 강의 중인 李동문은 이날 베토벤, 바흐, 슈만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이든예술기획 6412－3053〉

우리가 만드는
화학으로
세상은 변화와
더 친해집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BASF는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과
풍요로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함께 모은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것,
화학이 있어 가능합니다.
BASF, 화학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BASF의 비전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wecreatechemistry.com 에서 확인하세요.
150 years
BASF
We create chemistry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동문병원
www.nalgaehospital.com
어깨 · 관절 전문
날개병원
Shoulder & Joint Hospital
환자의 눈과 마음으로 설명 잘해주는 친절한병원
날개병원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93-1 (용두동 740-1) 안암오거리
TEL : 02-959-9191 / FAX : 02-957-1313
E-mail : rhiety@hotmail.com
대 표 원 장
의학박사/전문의 이 태 연

오창 에딘버러컨트리클럽
OCHANG EDINBURGHCOUNTRYCLUB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846 | 이용문의 Tel. 043)210-1900
오창에딘버러컨트리클럽
edinburgh 대전에딘버러 Par3 골프연습장
대전광역시 서구 북수동로 52번길 56(북수동) | 이용문의 Tel. 042)355-9000
edinburgh 에딘버러컨트리클럽(18홀 회원제)
충남 금산군 진산면 살구정길 167 | 이용문의 Tel. 041)750-0114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5년 4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5. 3. 3~2015. 5. 12)·일반(2015. 3. 5~2015. 5. 14)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 총동창회비 납부 계좌(성명과 입학연도 기재)
농협 079-01-442414 / 신한 140-001-180304 / 우리 1005-401-137376 / 국민 827-01-0248-009(예금주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회 장 단

△부회장 鄭忠始= 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권태우 인문83 △김성천 경영84 △김영철 치대61 △문수동 공대68 △박용일 공대62 △변재익 사대61 △서승덕 농대55 △성기점 미대58 △심순선 AMP73 △오세기 공대64 △우영태 AMP40 △유박영 HPM30 △이경숙 음대50 △이선영 생활78 △이재용 치대73 △이정식 사대72 △이화준 치대83 △정민화 자연84

〈일반〉
△강상우 공대09 △강상준 國院02 △강신태 사대75 △강태환 SPAR26 △강한주 法院10 △고명섭 인문82 △구은석 법대98 △국중하 SPAR26 △김규성 자연84 △김길량 법대95 △김두열 SPAR26 △김병구 사대56 △김상후 농대64 △김석근 SPAR26 △김선제 공대08 △김순자 ALP12 △김연희 CPHN③ △김영문 법대83 △김요셉 공대91 △김을권 공대59 △김인호 법대60 △김일태 AIC10 △김재진 법대65 △김현구 SPAR26 △김현종 SPAR26 △김형종 공대77 △김희중 공대02 △남동우 의대09 △노경진 상대55 △류민선 자연84 △류우익 문리67 △문창진 SPAR26 △문훈숙 ALP12 △박경춘 SPAR26 △박소진 AFB14 △박수경 SPAR26 △박연환 간호87 △박영제 AMPP14 △박재민 공대06 △박재원 行院71 △박정우 공대83 △박종수 치대60 △박지순 의대00 △박지홍 AIP46 △박효종 大院79 △박희임 의대99 △방수명 인대82 △빈미화 사대88 △서정덕 사대73 △손일수 AMPP③ △송상봉 사대58 △송한식 공대76 △신성일 AMFR30 △신언성 사회77 △신완균 약대74 △신요한 공대06 △신현준 문리61 △심은영 자연05 △안병용 인문80 △오병승 사대57 △오제환 공대84 △유상열 법대60 △유현심 SPAR26 △윤근성 사대72 △윤여균 법대82 △이경국 공대78 △이광철 AWAS② △이규연 SPAR26 △이도재 SPAR26 △이동현 AMP65 △이미순 인문81 △이바울 공대03 △이삼선 사대75 △이상봉 SPAR26 △이석암 行院78 △이성룡 공대83 △이영우 자유10 △이유섭 법대08 △이종민 SPAR26 △이종현 사회73 △이태경 공대10 △이태현 공대86 △이현태 사회96 △이혜경 수의02 △이호용 공대82 △임준규 인문85 △임형택 사회97 △장대길 경원68 △장수용 공대05 △장은선 의대99 △장준아 사회94 △장준영 공대09 △전만중 FNP④ △전수철 SPAR26 △전지중 AMP73 △전호용 의대07 △정성래 SPAR26 △정성훈 자연04 △정수영 법대96 △정승용 의대83 △정양하 자연08 △조대형 수의91 △조돈엽 SPAR26 △조병문 經院13 △조성민 ACPM10 △조성수 치대83 △진성훈 농대82 △진영우 SPAR26 △진영희 AWAS② △차화준 SPAR26 △최경하 AIC② △최병학 법대65 △최복규 법대82 △최성배 공대82 △최수정 간호10 △최영진 생활01 △최윤만 사대71 △최윤희 법대82 △최지언 경영01 △최진영 SPAR26 △최진호 인문83 △하헌영 AMP57 △현 영 농대77 △홍승일 공대04 △홍원표 자연87 △홍재원 공대13 △홍종섭 공대03 △홍중표 법대77 △황윤일 공대83 △황지호 공대85

이 사

◆인문대 △강현주93 △김덕출81 △김정호90 △박진우93 △박태영74 △손예철69 △심윤남82 △오세중79 △윤상익81 △이영인77 △이용기86 △조용호87

◆사회대 △고형권83 △김광재90 △김규수87 △김동선76 △김승희87 △김연광80 △김영섭81 △김찬동84 △박경재74 △박주태85 △박준서80 △성은식76 △신봉길74 △유성엽80 △윤현종81 △이건희73 △이창수85 △장성호86 △전상현91 △주순식73 △주진혁77 △최익순73 △한병송85

◆자연대 △강경관70 △김규중72 △김진익84 △박영준92 △석희용82 △윤용하84 △이명웅77 △이철현82 △장대연74 △정 황72 △정칠희75 △조재린90 △황열순86

◆간호대 △박선애73 △이선자61 △허 영74 △홍정희86

◆경영대 △김근수77 △김석호77 △김종훈86 △김홍섭79 △박훈기81 △백우현74 △이영민83 △임기찬90 △장인출85 △조표훈95 △홍석주72

◆공대 △강달영87 △강희태58 △고 찬99 △구자령82 △구창용60 △김 한74 △김노수45 △김도심52 △김범석92 △김석주48 △김성민91 △김영수58 △김원배55 △김원수61 △김정인94 △김정철55 △김제영71 △김종근54 △김종술66 △김진영68 △김태문70 △김태환66 △남승윤82 △남장수64 △문석형50 △문희성53 △민경식50 △박의승73 △박종렬71 △박찬빈60 △박한묵87 △박현철85 △박호견69 △박황호65 △배성한02 △백명철79 △백승욱58 △변순천85 △부창렬77 △서문호68 △서전석77 △성백문83 △손경업65 △심이택57 △안상록68 △양배근82 △양재균79 △오성환59 △원종환52 △유병철42 △윤석구63 △윤용균81 △이경환83 △이덕락78 △이동춘53 △이봉환68 △이상준76 △이수남69 △이영우79 △이원도59 △이원진89 △이윤표77 △이재은61 △이중성61 △이철원80 △이홍원66 △전상백53 △조덕상66 △조득호66 △지인호76 △최병선67 △최영식47 △최정욱49 △최홍영69 △하규성76 △하준환51 △한상흠85 △한재성79 △현정훈76 △현희헌59 △황이선62

◆농대 △강인섭73 △김동태62 △김민수73 △김병운69 △김승로01 △김윤경70 △김진석69 △김풍진71 △김현구50 △김훈동63 △민경택88 △박종주66 △박창용65 △변상지74 △서기호60 △손진규82 △손해일67 △신진섭78 △심용섭70 △안수구73 △양성용73 △양재승70 △여강연80 △오세인55 △유 석59 △유세현79 △윤상철80 △윤재수63 △이상걸79 △이세표55 △이숭겸75 △이종헌80 △이혜근67 △이희석57 △임봉주65 △임순만62 △장성구73 △정수봉60 △정필수66 △조수경72 △조진환50 △최락헌61 △홍동선56

◆문리대 △구태회46 △권병두65 △김규상57 △김기주54 △김상복57 △김영일62 △김옥남52 △김용범60 △남기흥67 △민영기57 △박영원69 △서옥식69 △양철주59 △엄경일64 △오완영59 △유정열52 △이상무61 △이용태53 △이정길59 △이정남51 △이충희54 △임병석54 △임형택62 △장정환56 △정무호61 △정소성64 △차흥봉62 △최서영54 △최홍근70 △한박무66 △황종철67

◆미대 △강신옥86 △김성희82 △김연수76 △김응화81 △김학두46 △조정송59 △최충식84

◆법대 △강만수65 △강상진87 △강승구80 △강신원72 △강희철75 △고범석83 △고흥달68 △곽노준74 △곽종훈71 △김 신76 △김경태63 △김귀동70 △김두희58 △김상곤85 △김상우86 △김성길60 △김신택57 △김연곤85 △김영우56 △김영일60 △김영재57 △김영태84 △김용인69 △김우진83 △김윤성76 △김의환81 △김인겸82 △김정후57 △김제성95 △김종상65 △김종윤72 △김종일52 △김종춘86 △김진우52 △김창복51 △김창희82 △김태현46 △김형선57 △노태호66 △류기홍58 △명노승65 △민수광60 △박 만70 △박영렬75 △박영수52 △박용상63 △박용석74 △박재경57 △박재태81 △박준서58 △박충근68 △박환승83 △배용재74

변호사 김성일 법률사무소

김성일 변호사

21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 주요경력
안양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당시 안양원예농협 금리조작사건 간부 구속, 재건축비리 재개발조합장 구속, 혈세로 도박한 정부관료 구속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건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정의검사로 불려졌으며, 모범검사상 수상과 환경전담 우수검사상 수상

■ 전문분야
특별수사(금융, 조세, 기업비리), 형사(환경, 청소년, 성폭력), 민사, 행정

■ 업무장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308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위치

■ 대표전화 (02)591-8300

■ 주요 학력 및 경력
* 서울대학교 ALP 21기, ASP 26기, SGS 25기
* 서울 광성고(65회), 연세대 법과대학(81학번)졸업
* 서울중앙, 부산, 인천, 의정부 검사
* 대구서부, 부천, 의정부, 안양부장검사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22기) 수료
* 서울서부지검, 제주 부부장검사
* 서울고검, 대전고검(청주지부장) 검사

△서상희68 △서정석65 △서창희82 △석용진59 △손기식68 △송경숙91 △송석봉87 △송진훈59 △신영수70 △신현욱66 △신희택71 △심상철76 △심장수70 △안종윤51 △안종택73 △여상조70 △여상훈75 △오연균76 △우병우84 △유영상81 △유정호62 △윤보옥66 △윤재열50 △은현호87 △이대우67 △이덕모71 △이동춘59 △이동흡68 △이민재72 △이성웅61 △이원호61 △이재창56 △이재철70 △이종주85 △이충범78 △이태창61 △임 경78 △장부웅59 △장준철67 △전재기58 △전태환84 △정광우61 △정대권75 △정덕흥68 △정용달81 △정은구58 △정휘위62 △조영삼81 △조장혁90 △조지만90 △조해근78 △주석영79 △채 윤78 △채주엽91 △최강호67 △최기정60 △최병덕72 △최상엽56 △최석원52 △최세관54 △최영도57 △홍경식70 △홍세렬80 △황보경석50 △황이연55

◆사대 △강영삼59 △고영신73 △곽창신72 △구성회55 △김남조47 △김영화76 △김용균65 △김유명69 △김종찬87 △김준한61 △김학천59 △민무일65 △민흥기59 △박찬구56 △박천배74 △신찬우48 △신하영58 △안승룡75 △엄영주66 △오창훈63 △왕문용66 △유덕준60 △유희임68 △윤웅섭61 △윤익모62 △윤재봉56 △이광범92 △이규석66 △이기영68 △이기준67 △이노연58 △이원강57 △이환의54 △정귀생58 △정봉문91 △정연만79 △정용길77 △정주섭52 △정지오73 △조경오75 △조주현04 △최기숙65 △최성재85 △최영상56 △최준명60 △최희유68 △현성준78 △홍철근70

◆상대 △고일성54 △곽윤광60 △구선회56 △권혁승53 △김경모61 △김기휘66 △김대중66 △김성규57 △김영섭66 △김정우65 △김창달53 △김하두64 △김형만52 △문영도50 △박 간68 △백정기71 △엄수명61 △우두헌61 △유석홍61 △윤영원55 △이승웅60 △이용성56 △이재규65 △장무환45 △장종록57 △전종환51 △전창수57 △정주호65 △최경식59 △최남식59 △최명규46 △표학길66 △한병무59

◆생활대 △박복순70 △엄윤경78 △우경자61 △윤혜원82 △정현희72

◆수의대 △김계방61 △김성수64 △김진구61 △김택수55 △박희춘66 △배상호64 △송치용83 △신도균81 △신래섭56 △이도필49

◆약대 △강석진55 △김명수71 △김미혜87 △김상조54 △김의영80 △김장호65 △김재환68 △김정기69 △맹호영81 △박승규59 △박태동77 △배영일60 △손인자69 △신현학56 △신화용46 △심규장70 △오연준56 △유태숙72 △이세영57 △정연진69 △조용현74 △조중현68 △지현석56 △한규흥64 △한방숙66

◆음대 △김금수76 △김미경69 △김상원87 △김영숙85 △김종필81 △민미란73 △박정욱78 △오미혜71 △윤명순79 △이방실92 △이창수67 △정순용82 △황영기82

◆의대 △강세윤59 △강승백82 △고건성67 △고행일64 △김기락68 △김성덕65 △김영균43 △김용봉70 △김인호71 △김청수68 △김한수82 △김현우64 △동영송49 △박경환71 △박세용76 △손근찬52 △송희승53 △양성범75 △양승열51 △오승환56 △유영성70 △윤용범66 △이관희75 △이대규53 △이봉화75 △이부영52 △이순형56 △이윤호68 △이충원76 △이태연90 △정을삼60 △정종환56 △정필현82 △주영수84 △지삼봉55 △최훈동72 △한진희71 △홍기정81

◆치대 △구창서58 △권오양74 △김 일51 △김기현56 △김능세70 △김봉호56 △김정욱83 △김종철71 △김채종68 △박기성55 △박상규03 △박연천72 △백경동86 △서영수67 △신동인76 △오세웅90 △윤봉윤79 △이수구66 △이용오62 △이윤상59 △이준규66 △이청룡70 △이한무65 △장동재79 △정건용52 △정관서79 △정호길71 △조경석79 △조행작64 △최성근65 △한광수72 △한충일78 △허재식93

◆대학원 △강경규81 △강우식83 △권병남81 △권부섭81 △김창준86 △문형근79 △박복만66 △송강영91 △신호수85 △오진욱92 △윤경섭89 △이광재78 △이시운81 △정성렬85 △조대우79 △최원회81

◆경대원 △양승현71

◆교대원 △송향섭64

◆보대원 △권혁한75 △박원길65 △서은하96 △유희종00 △이규한63 △조경종68 △황석천80

◆사대원 △정경식63

◆신대원 △김우룡71 △김태문71

◆행대원 △김익영68 △이원기67 △이주석84 △이채필83 △이춘희79 △정여칠74 △최석식83 △최순현73

◆환대원 △박상락84 △윤종식89 △이만의73

◆AMP △강봉희36 △공회식72 △김건종38 △김기용28 △김봉규20 △김진성27 △김홍래36 △민경서48 △박달용4 △박영대1 △신명철8 △심계진36 △유병운23 △유시수25 △유한섭23 △윤용암66 △윤종호48 △이대영67 △이수증26 △이원구50 △이윤로50 △이재민63 △이태섭5 △이한규23 △장기홍8 △정영대48 △정환진47 △조성명75 △조승현66 △조인수74 △천용택31

◆AIP △김석환30 △김성길7 △김승겸16 △김창진48 △김학규26 △김후곤17 △노완구18 △문일권39 △박영기29 △서영복19 △양 명9 △양희준16 △예상호8 △오태호33 △윤명수30 △이석원36 △이세영13 △이재서11 △이정열46 △전영하28 △최정남22 △홍두선49

◆ACAD △고세일32 △김무수74 △김성헌40 △박 현55 △손재권73 △신태용73 △유재필23 △이덕수44 △이상철33 △이영희57 △임충규45 △장기윤72 △전영배5 △정송학54 △정시채9 △조홍규26 △최형태68

◆ABP △김성일15 △김수동32 △박준명12 △이상락4 △이상래24 △이수연23 △이헌구39

◆SGS △고병준22 △김종호4 △송두영22 △안영대22 △최호운18

◆APC △안 기15 △이용배5 △조성구7

◆CHCN △문순자11

◆HPM △권오성23 △김광화9 △안영미28 △양통권23 △윤귀남5 △이구봉29 △이상완11 △이태수6 △임신규30 △조정식23 △하병철28

◆AMPP △류귀식7 △이은세9 △전제원12 △조현국12 △최종식6

◆AIC △이인기11 △이종대18 △최유섭11

◆AFB △이영두9

◆AMPFRI △김병문17 △김재원17 △김정훈1 △서강인30 △한기영3

◆ACPMP △권정훈8 △김정식3 △민평기4 △이종명9 △정원배3

◆FIP △서덕화2 △이재병1

◆GLP △강대철25 △김세원25 △김용태17 △김원철15 △박영식18 △서재섭24 △손영수3 △이상복25 △이희명26 △차기민16 △최진철18

◆ALP △권영상1 △권영찬4 △김재현2 △손용근6 △오도영1 △임영철5 △허충회18

◆SPARC △권세원16 △김달수1 △김태곤6 △백인호18 △정삼진18 △최광종6 △홍기남5 △황인옥21

◆AFP △박철수11 △정일채8 △조원국5

◆ASP △노경학21 △송인정10

◆IFP △강태영9 △권영용6 △김문학5 △김용배2 △이승득1 △한민석3

◆BCP △박종우12 △오영호2

◆ABKI △이현성1

일 반

◆인문대 △강상진83 △구상본78 △김 영88 △김미영88 △김소희02 △김영인79 △김종서72 △김혜은05 △노민혜08 △박영식79 △박지수07 △박형진07 △백기훈82 △성관정06 △신남경87 △안연희92 △유주연89 △이동건91 △이민주06 △이정근03 △이정은09 △임채민77 △전순익74 △정지원09 △정필중07 △제일환08 △조은미81 △조진용87 △조형동84 △최석문94 △최승범08 △최윤미09 △홍범식83 △황성태90

◆사회대 △구갑문74 △권용신86 △김균영84 △김미섭88 △김봉주82 △김봉준00 △김성욱11 △김수지09 △김용수84 △김치송11 △김현균03 △김현호03 △박근원03 △박원재83 △박정호83 △박종현83 △방영식98 △손건수83 △손종원81 △송기동82 △송승용90 △송현종83 △신계용82 △신우철10 △신제윤77 △신현기90 △심용재85 △안성진80 △오경수00 △오세인07 △오승민10 △유원규08 △윤여일91 △이경상86 △이근태87 △이상혁06 △이석홍82 △이세준82 △이용호88 △이은형12 △이일현75 △이진녕78 △이희윤11 △임일섭83 △장정아09 △장한식83 △전재호95 △정국환73 △정규억73 △정연모13 △정용진98 △정우진95 △정원희10 △정재호73 △정지웅98 △조 민90 △조인우06 △주 리83 △최원석82 △최형근69 △하동완85 △한 신82 △함보현95 △황선웅72 △황수연09

◆자연대 △강수헌04 △고민섭03 △권준현11 △권혁준06 △김광영86 △김광준81 △김기돈12 △김기표00 △김남우03 △김병수74 △김세윤12 △김신우99 △김용무11 △김용주01 △김정균03 △김종진88 △노진철89 △노혜림80 △박대열68 △박영일02 △손준익94 △송파도11 △신재혁07 △안득수02 △안정은09 △양일우72 △엄상영77 △유세한98 △윤상은07 △윤진명10 △이강근80 △이규현79 △이동규09 △이상철81 △이종운95 △이충렬00 △이현숙85 △이호성81 △임경수06 △임병호05 △장종만72 △전세영08 △조성일92 △조영길74 △조은진10 △조현진01 △주영길88 △최광현82 △최나락98 △최진혁71 △최태혁10 △현민아02

◆간호대 △고혜명65 △김민주10

△김재희84 △김희자69 △민복희55
△박지연09 △박현태99 △이선주81
△이아영81 △이인옥74 △한영자66

◆경영대 △강두골85 △곽병우95
△권용기75 △김기준03 △김기훈02
△김수립13 △김원구78 △박희수71
△배수현89 △서학수82 △석준희12
△신윤철70 △신재호13 △안병현05
△양진호89 △양한규94 △오석현08
△윤석진90 △이난샘99 △이재우92
△이충호00 △이현철83 △임성균77
△최승로08 △최연석08 △최완영05

◆공대 △강석호57 △강영식64
△강영식68 △강태윤74 △강현우07
△고낙용55 △고순민98 △고승훈08
△고정한88 △고충준59 △곽창환01
△곽희로61 △권 철65 △권귀감08
△권두섭57 △권순영52 △권지연10
△금동인88 △기영환62 △김 진08
△김 철58 △김경원79 △김경은95
△김경학72 △김광일56 △김기엽77
△김남윤13 △김대성87 △김대식78
△김돈건99 △김락성54 △김민규90
△김민철10 △김백만90 △김병남73
△김상원94 △김성민99 △김성섭74
△김성훈10 △김세영09 △김연호09
△김윤제62 △김일두06 △김재경97
△김재설57 △김재헌87 △김재형51
△김종한61 △김종호72 △김주찬75
△김주혁10 △김주호05 △김찬식83
△김철순53 △김철호72 △김태경89
△김태녕86 △김태문55 △김태욱79
△김태한00 △김태협11 △김택중56
△김학수82 △김학준02 △김한별08
△김형규10 △김형백75 △김홍규08
△김효경46 △김효수87 △남궁석52
△남기동43 △노충래62 △노환영56
△류성룡91 △문형석03 △민철기56
△박규식91 △박기철72 △박기태91
△박노열06 △박민서79 △박성수72
△박성택12 △박영순54 △박용승54
△박이관58 △박인혁94 △박일재78
△박종태61 △박종화10 △박진모07
△박찬용06 △박천경52 △박현규11
△박형순60 △박희천07 △반병문74
△배재한11 △백덕현53 △백사익40
△백선욱62 △백영방55 △백효석62
△변진규91 △서두석71 △서세현65
△성기원04 △성호용03 △손승래54
△송기선03 △송수영51 △송영수01
△송영찬06 △송은창08 △송재혁87
△송종은95 △송지환12 △송현근12
△쉐르빈12 △신휘섭08 △심규대05
△심신용11 △심인보53 △안규홍72
△안정기03 △안홍삼63 △오다롱12
△오동익89 △오명환70 △오창훈96
△오태웅94 △우종민97 △유상희58
△유인섭91 △유일상57 △유재석08
△유홍식53 △윤남하51 △윤상철51
△윤승현93 △윤여경48 △윤혁준86
△이강택88 △이경식78 △이광민57
△이규화68 △이균상62 △이근수54
△이동선61 △이동우85 △이상경08
△이석주57 △이성배74 △이성실51
△이성주83 △이승무61 △이양훈86
△이영기08 △이완희02 △이용선11
△이원구85 △이원철08 △이윤빈92
△이인호82 △이인희56 △이재환06
△이정규64 △이정준01 △이제근56
△이지수77 △이진기46 △이진열70
△이창수99 △이채관07 △이혁재66

△이화용70 △이화준69 △임현용69
△장대현08 △장덕현82 △장석호56
△장재명00 △장현봉76 △장호엽81
△전병규01 △전복현58 △전승헌07
△전의진65 △전지혜09 △정근영85
△정민하91 △정소리03 △정수근84
△정수완95 △정승교07 △정연수05
△정용근85 △정의석85 △정해걸69
△정해길65 △정호준03 △조건일62
△조문형96 △조민욱02 △조수길53
△조영선63 △조재영10 △주익철89
△주재휘75 △진석현56 △최 인69
△최규식00 △최기혁84 △최동석98
△최동진81 △최석훈09 △최성수57
△최세진92 △최수홍06 △최왕돈80
△최우방63 △최우석95 △최정립53
△최준석11 △최준섭06 △최중식82
△최치진09 △최효병59 △최희정61
△추성원06 △표태원74 △하종민05
△한건우55 △한겨레08 △한정빈63
△한창희66 △한현호71 △함준호68
△현 철05 △홍상현07 △홍성목54
△황남웅11 △황보주원98 △황영문53
△황영하10 △황종일71

◆농대 △강유성64 △강인목54
△강인평55 △구태훈89 △권 혁02
△권상대61 △권용민07 △김관선58
△김기철90 △김두규67 △김두만52
△김문수54 △김병윤55 △김봉수50
△김삼식53 △김석동72 △김영상58
△김영택55 △김용찬57 △김윤배61
△김이기80 △김재동78 △김재영94
△김정기56 △김종원57 △김종천53
△김진오69 △김진웅60 △김태희57
△김택구63 △김한석66 △김홍철78
△김효석03 △김휘천63 △남구한60
△남궁욱79 △노재흥56 △마종선82
△문재원10 △박관식54 △박명식87
△박승걸53 △박용길53 △박용제67
△박정수61 △박종국57 △박종대76
△박진화57 △박찬봉77 △박창호58
△배기철04 △백승언44 △서완수58
△서유리12 △손광훈62 △송 흡03
△송기환86 △송인호05 △송종익55
△신건성62 △신상혁56 △신서균58
△신이나08 △신재인56 △신혜영06
△심상우57 △심상헌46 △심의구50
△안용신09 △양동섭90 △오규진07
△오봉국45 △오완수50 △오정행60
△오준석72 △우무일64 △유기성56
△유기형53 △유원길63 △유종근86
△유형준03 △윤동면65 △윤재웅09
△이건우52 △이경용53 △이광현54
△이기순69 △이두황75 △이면영52
△이병근67 △이상목11 △이수옥55
△이영호68 △이용준90 △이원희50
△이인형56 △이종렬50 △이종찬09
△이중훈48 △이창규85 △이태형72
△이형구61 △이홍석52 △이화용53
△임성빈57 △임승룡55 △임용섭87
△임정수78 △임철홍11 △장세종66
△장용인70 △장인권81 △장정수64
△전성억55 △전영수62 △전우방55
△전현기64 △정돈철68 △정인모70
△정진우82 △조규열52 △조명수11
△조성환51 △조정현08 △최무재53
△최상수63 △최수용98 △최영주75
△최은순78 △하맹종58 △하유미84
△한관석54 △한규근65 △한기학52
△한상룡58 △한상익57 △한석현52
△한정수51 △현재선44 △현호언53

△홍순일63 △홍순흥58 △홍철선58
△황규만97

◆문리대 △강낙중56 △강석명56
△강신성55 △기우탁57 △김 윤61
△김구현50 △김기근69 △김동일58
△김득중61 △김성배57 △김영소66
△김영식64 △김옥민51 △김유석55
△김정택60 △김종휘56 △김중하57
△김흥수57 △나미례65 △류민성64
△박대영60 △박상우58 △박성철48
△박희봉48 △배인하59 △변광수65
△변중섭48 △변창명56 △서세창53
△송연달67 △신승일57 △신효순61
△안남순54 △오재규52 △오헌승65
△온준철64 △원용우60 △유병길68
△윤용진59 △윤흥로62 △이계원59
△이광열71 △이근택66 △이범주64
△이병재60 △이연재56 △이용웅65
△이우봉69 △이우현60 △이원희55
△이재술57 △이정숙57 △이주형65
△이준모63 △이형기57 △임창근59
△임채호58 △임형두57 △전만수55
△정규석56 △정서구65 △정영채62
△정해웅49 △조성술53 △조영길58
△최 진56 △최동환49 △최봉석69
△최선록59 △최순봉55 △최승일61
△최인일68 △최창섭61 △한철순58
△현영욱67 △홍승호59 △황연익57

◆미대 △김영희78 △김충경54
△김현경86 △류종민60 △문혜진10
△박소영97 △박양자64 △박연도56

△박일훈81 △배경희02 △오병인57
△윤형실54 △윤형자61 △이성경08
△이재호04 △이주현98 △이학영52
△전지윤86 △정상원58 △정선화56
△조재구60 △차정화05 △최진주81
△홍경희66

◆법대 △강석균50 △강형춘54
△고명윤54 △구충회48 △권영국69
△권용모93 △김국진60 △김근태49
△김기경85 △김기수58 △김기형50
△김남식57 △김남진51 △김동익53
△김민영02 △김상군92 △김상욱69
△김상태66 △김선중70 △김세돈72
△김승식52 △김시수62 △김영균52
△김영균57 △김용헌74 △김운용81
△김율섭56 △김재규57 △김정중91
△김정환57 △김종성67 △김진홍57
△김황식67 △노동표80 △박 찬63
△박규태56 △박병희52 △박상천57
△박세철51 △박영목83 △박영석56
△박우동53 △박인환51 △박장우66
△박종현06 △박태호67 △방극성74
△백영철68 △변은석89 △서영덕57
△소영진85 △손석주55 △손태호76
△송경호90 △송재헌60 △신현무58
△안기영36 △안의환92 △안창수52
△안해연07 △연승호08 △오재선61
△오형환65 △우영화62 △위인규93
△위평복04 △유덕택54 △유재성59
△윤 탁61 △윤명중55 △윤성훈96
△이 홍62 △이계영48 △이교선55

△이대영58 △이명순85 △이백수54
△이상덕59 △이성규92 △이수길62
△이승철92 △이양순55 △이용규88
△이원택61 △이재희57 △이필관90
△이학성77 △임상현59 △장 권54
△전일호96 △정재일52 △정종현60
△정진우97 △정훈보57 △조남현54
△조주순61 △주진오99 △지원훈61
△채명선06 △최병주78 △최세윤01
△최원빈53 △최창용85 △하광룡76
△한용기62 △한후진57 △호성식08
△황선무58 △황인구00 △황재성64

◆사대 △강호철69 △고종익74
△구양언60 △권문한74 △권혁봉49
△김경자63 △김경철60 △김동광60
△김명해55 △김미정83 △김병국56
△김봉호68 △김수경10 △김수영81
△김연성01 △김영준80 △김용복57
△김용운89 △김원석56 △김종두97
△김지숙03 △김찬흡60 △김창걸56
△김창경61 △김태영56 △김혜정85
△김홍우58 △김환수09 △김희분50
△남기종54 △노정원08 △류은선87
△민영업55 △박나영03 △박보기61
△박선영10 △박양수56 △박영숙41
△박영자46 △박원선58 △박인호53
△박정용84 △박주해50 △박춘진57
△배승필82 △봉정모72 △설정숙53
△성완용63 △손경해57 △송다은10
△송선영00 △송재욱70 △신동환12
△신상인03 △안규철58 △안영숙52

△안재신05 △안정훈99 △양세영07
△오유정08 △유기동65 △유기웅59
△유영비03 △유택상03 △윤기정75
△윤상천56 △윤정희54 △이광열56
△이광용61 △이광정67 △이병준03
△이상경65 △이상교61 △이상재59
△이새롬03 △이석주60 △이수창03
△이시정54 △이시훈57 △이시훈57
△이영윤58 △이영주56 △이용철80
△이원태78 △이원희69 △이재만52
△이종덕60 △이주옥97 △이진영51
△이충현08 △이태웅71 △이현규62
△이현순52 △이현영56 △이화진11
△임광수68 △임수진10 △임학수69
△장완배61 △전경옥58 △전쌍식87
△정관덕59 △정규범70 △정동화53
△정부길59 △정상호67 △정수웅62
△정영숙58 △정영애70 △정우상53
△정은실74 △정은호59 △정재도82
△정지규11 △정차근61 △조시영85
△조연희58 △조윤섭07 △조의래56
△조희식54 △주봉노55 △지동소55
△진홍성80 △최경아82 △최길순49
△최두영78 △최래옥60 △최영춘57
△최종우68 △최학준60 △최현실87
△하만천50 △한인영08 △한재용55
△홍운표54 △홍인혜11 △황능하51

◆상대 △강원구54 △고을상51
△권기봉54 △권영진58 △김경모56
△김규석55 △김동원69 △김상은53
△김선길45 △김성주55 △김승경55
△김영무56 △김웅렬49 △김유일53
△김종희65 △김태구59 △김홍배63
△나웅배53 △남영우69 △노준용64
△민병콰52 △민병훈56 △박광칠56
△박기환61 △박대룡50 △박풍아62
△배종섭58 △배진성58 △백기환53
△서병태63 △성락후63 △손경수56
△송정위60 △신문철52 △신용태59
△신중현56 △안영목57 △안익수53
△양재국50 △양해성68 △오기화57
△오상봉70 △오정현54 △우일균50
△위봉택62 △유재윤68 △유재홍68
△유춘상54 △윤록현59 △윤정희54
△윤호중52 △이계식56 △이동훈50
△이명기59 △이성열69 △이태종50
△전창기57 △정경완55 △정문화71
△정성보53 △정영환53 △채수한56
△최경국57 △최성한56 △최익재68
△최종원55 △최처락54 △한철수62
△홍구희57 △홍용찬64 △황규백63

◆생활대 △기민정10 △김경애66
△김민정05 △김유진05 △남기숙57
△문혜정92 △박미연04 △서유미82
△원누리10 △윤승건05 △이경선06
△이규진58 △이지현04 △정하윤86
△조은희76 △조혜자60 △최소연09
△한의수57

◆수의대 △강영훈84 △고성옥57
△고주영65 △김선일63 △김세훈97
△김영목51 △김용대63 △김점수84
△김종건65 △김종면52 △김태희58
△노병의61 △목선균69 △박신규61
△박양기56 △박영준75 △박유순63
△배동희86 △서상호91 △석호봉63
△신문균56 △양재만91 △오순민81
△윤영원63 △윤태걸58 △이경환60
△이상우65 △임춘기77 △정승기53
△조기형49 △조병왕61 △차혜진09
△최귀철77 △최성호57 △최찬영66
△한인식64

◆약대 △공영석57 △기민효05
△김민겸11 △김영호57 △김옥란55
△김용정58 △김정숙69 △김조한59
△김태윤55 △김현옥57 △김혜자55
△김홍대59 △류한호60 △문창규59
△박만기59 △박은유83 △박창규52
△박창서67 △배종철69 △서남현59
△송나래05 △유도봉66 △유성열75
△윤은정03 △윤형중57 △이계준64
△이미경85 △이상호66 △이윤주84
△이진희02 △정연심54 △정종한73
△정환수51 △조승희87 △조철원57
△조현종02 △천세은11 △최수안04
△최혜정86 △허명권69 △홍옥선55
△황의성61

◆음대 △곽지향10 △기영호88
△김남일11 △김성희75 △김영희53
△김옥숙58 △김은경57 △김은경86
△김인제74 △김진록09 △박기옥61
△박성진02 △박정배53 △박혜성83
△서수민97 △오진옥68 △유정민87
△유혜립09 △유화자59 △유효정00
△이동민09 △이민나00 △이영민01
△이윤정04 △이재영80 △이종찬10
△임정선57 △정혜연02 △피호영79

◆의대 △강정후70 △강진화80
△고재균50 △구본희54 △권영표43
△김기철83 △김병엽50 △김승육78
△김신후11 △김영우10 △김종박59
△김종희50 △김철규58 △노효근56
△도병욱83 △박중원77 △박춘남72
△박한철53 △박홍용80 △배진선58
△신성우47 △신요철54 △옹상길58
△유 준41 △유상현10 △유형록57
△윤용구66 △이방제57 △이상립46
△이재화06 △이태훈11 △이한나12
△임경환01 △임문순12 △장선택46
△장주현02 △전동수44 △전예근46
△조광수47 △조병주46 △조현찬71
△최준호69 △한승석01 △한언철13
△한정규98 △홍순원49

◆자유전공 △조은별10 △최필준09

◆치대 △강인희77 △고영택58
△김교식72 △김병수84 △김상세60
△김시영00 △김언형93 △김연만55
△김영권55 △김용철63 △김유진68
△김정자59 △김택영74 △김평일72
△명동성61 △박동귀55 △박용학58
△박이자60 △서기항74 △손윤희87
△안정모66 △양정강58 △염도섭91
△오성진71 △윤태호82 △이규철58
△이만선66 △이세영96 △이승연61
△이양구57 △임광수60 △임달수54
△전훈식59 △정영한72 △정철표74
△조일제77 △조창홍46 △최승은63
△최지원86

◆대학원 △곽영세86 △김기용83
△김완구95 △김주혜91 △김홍석74
△류병관89 △박영수94 △박태용95
△변수석93 △손상익85 △양덕권91
△윤정식94 △장인정81 △조석준57
△조일구94 △한성수80

◆MBA △성한제12 △이태균13
△정성득13 △정희선11 △조주일12

◆경대원 △김일란69 △박정수93

◆교대원 △김성기94 △심수정71
△정월용73

◆국대원 △고영진08 △장민애13

◆법대원 △신주연12 △양재헌11

◆보대원 △김윤주89 △김종만62
△오병근88 △오애리09 △유은정12
△이선영09 △이양재61 △이용성73
△장영섭87 △한서경65 △황금복76

◆사대원 △김준열63

◆신대원 △유종수70

◆행대원 △김경섭73 △김상규83
△김육진12 △김회동78 △노선호68
△박성환84 △박찬도64 △신기악64
△신지현08 △이강두71 △이권철01
△이용아07 △임세환71 △정효성82
△채양이86 △최성안82 △최효섭12
△허점욱80 △현창기69

◆환대원 △김경대83 △김윤정08
△김은아01 △김인근84 △박상진94
△박은혜08 △박종준09 △백종학13
△이만수94

◆AMP △김석중63 △김영훈49
△김용범30 △김우전07 △김태웅48
△류칠조12 △문성주77 △박근학51
△박원식66 △박인석53 △박종구21
△백문현25 △신우식24 △우영길27
△이병달28 △이상갑25 △이상규76
△이영주05 △이진선36 △이현섭22
△임창건59 △장남진48 △정공식63
△정동락52 △정수진76 △정용근45
△조남용68 △조석제62 △진성섭10
△최병면41 △최용묵53 △홍경선52

◆AIP △고형석21 △공학선44
△김영규45 △우동석07 △유춘종14
△이강원33 △이봉훈36 △이현영08
△장희천20 △정환창16 △최재영11

◆ACAD △김달술02 △김만기07
△김문학79 △김상렬58 △김진섭38
△김호연11 △남희진76 △문동명44
△박형구72 △변희준20 △서찬교40
△손정식44 △신태희32 △안승우38
△안신환34 △안진희78 △이강연27
△이은흥48 △이철진79 △이필우33
△이학동44 △전해성33 △최병길11

◆ABP △강홍석22 △구태군07
△김규대22 △마호웅32 △박인수17
△박정근45 △변정섭14 △서문선45
△오기선30 △윤상규23

◆SGS △민상금01 △옥병덕24

◆APC △강유신14 △곽억연17
△권칠인20 △안병철05 △유기호12
△이재욱11 △이종국20 △임기한17

◆HPM △구본세32 △권차남05
△김현호32 △배일순24 △배현일32
△소정룡20 △신현희20 △윤성근33
△이규호30 △이태형29 △장형모33
△정동윤09 △정희철33 △조용선12

◆AMPP △김영복15 △문병일15
△양은희07 △최익현02 △한재순07
△한태영10

◆AIC △김병곤37 △조현호32
△황해은37

◆AFB △김희원14 △이준욱14
△조준상10 △조창동14

◆AMPFRI △고광천28 △김인호07
△양동수06 △정행성08 △황재웅07

◆ACPMP △구승석11 △김수환10
△김현유11 △안순철03 △안지민11
△이갑영11 △정 철10 △하명수11

◆GLP △김영국06 △송병원20
△오세욱28 △이방희28 △임창규27

◆ALP △김정식20 △김창식20
△류지영20 △안내형20 △이정재08
△정영조08 △정재흠12 △주정환13

◆SPARC △김수형04 △박진숙09

◆AFP △김동춘05 △송인회02
△송치호13 △조운자13

◆ASP △김대욱03 △김민철23
△김영학26 △박승구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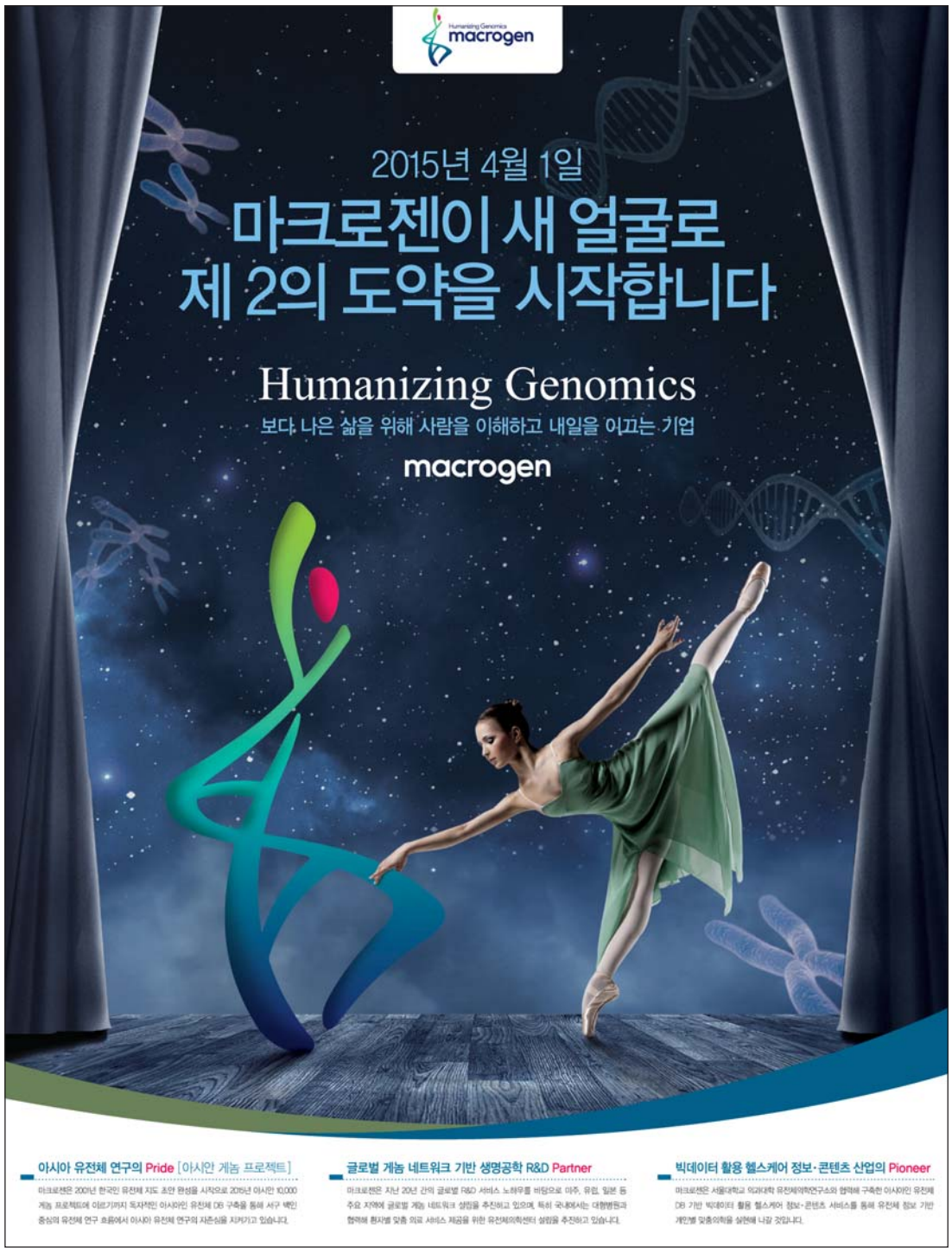
◆IFP △조진영04

◆ABKI △강신우02 △김상문05
△류영철05 △류종기04 △문준기04
△송수현05 △안낙영05 △이상배05
△최병일05

◆KFL △강재희18 △박경미17
△정연옥08

◆FNP △김상현03 △부종일06
△손우기04 △이세재06 △조순자02
△주상집06 △진용두03

◆AWASB △남상구01 △성열상02
△송정빈02 △정세영02 △한기서02



2015년 4월	
연 회 비	39,740,000
평생회비	46,000,000
입 회 비	350,000
계	86,090,000
2015년 누계	484,660,000

한우물®

[전기(분해식)정수기]

「한우물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한우물정수기는 단지 필터 몇 개만을 통과하는 일반 정수기와는 다릅니다."

그 어떤 국내 정수기보다 가장 많은 미네랄을 함유하는
미네랄 전해 약알칼리수를 생성합니다.

국내유일의 전기분해정수방식 한우물 정수기!

FDA

정수기로는 이례적으로 미식품의약국으로부터
의료기기(FDA Medical Device)로 등록된
대한민국 명품정수기 한우물!

KAA 아토피 안심마크

대한 아토피 협회로 부터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한 **한우물 정수기**

마셔보시고 결정하세요!
전화상담만 받아보셔도 물 맛이 뛰어난 한우물의
전해 약알칼리수(500mlX4병)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우물의 '전해 약알칼리수'가 아무리 몸에 좋다 하여도,
'마음의 평안(靜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우물 판매원 (주)대정유통 | 1588-4804
www.hanumul.co.kr

LOUIS CASTEL
PARIS

COLOR
GOLF
WEAR
루이까스텔

(주) 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02)6414-5469, 5472 www.louiscastel.com